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새로 개건된 평양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리설주 동지와 함께 우리 나라 화장품공장의 전형단위, 표준으로 훌륭히 전변된 평양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위대한 장군님의 존귀하신 영상을 모신 모자이크벽화 《우리 인민들에게 더 좋은 화장품을 마련해주시려고》를 보신 다음 새로 꾸린 혁명사적교양실과 연혁소개실을 돌아보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2003년 8월 평양화장품공장을 현지지도하시는 위대한 장군님의 영상 사진문헌들을 한상한상 주의깊게 보시면서 우리 장군님께서 훌륭히 전변된 공장을 돌아보시였으면 대단히 기뻐하시였을것이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통합생산지령실, 화장품직장, 비누직장, 화장품용기 직장, 도안창작실, 화장품연구소, 화장품분석소, 과학기술보급실, 제품검본실 등 공장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개건정형과 생산 및 연구실태, 제품의 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였다.

생산지휘와 경영활동을 과학적으로, 종합적으로 분석예측하고 최대한의 실리를 보장할수 있게 통합생산 및 경영정보관리체계를 높은 수준에서 구축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피부보호 및 기능성화장품, 분장용화장품, 머리칼화장품, 세척용화장품을 인민들의 기호와 수요에 따라 여러가지로 생산할수 있게 원료배합, 주입, 포장공정을 자동화, 흐름선화하였다고, 화장품용기생산공정에서 줄지어 나오는 용기들도 하나같이 마음에 든다고 기뻐하시였다.

공장을 개건하면서 새로 설치한 현대적인 설비들중 84%에 달하는 137종에 814대는 평양시안의 공장, 기업소들이 과학연구기관들과 협력하여 자체로 제작설치



하였는데 대단하다고, 개별팩포장기를 비롯하여 사장되어있던 설비들을 모두 개조하여 생산에 리용할수 있게 한것도 자랑할만 한 성과이라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이 성과속에는 해당 단위의 공장, 기업소들이 자력갱생의 기치높이 자금, 자축하도록 정책적지도를 잘하고있는 경공업부문 지도일군들의 투쟁기풍과 투쟁본때가 깃들어있다고 하시였다.

화장품을 생산하는 공장의 특성에 맞게 모든 생산현장과 복도를 유리칸막이로 격폐시키고 위생통과실을 새로 꾸려놓았을뿐만아니라 성능이 높은 공기조화기를 설치하여 무균화, 무진화를 완벽하게 실현하였으며 바닥 벽체를 에폭시수지와 아크릴수지칠감으로 마감하니 일터가 깨끗하고 정갈하며 환하다고, 마음에 든다고 말씀하시였다.

과학기술보급실을 리용하여 과학기술 학습을 짜고들고있는것은 종업원들이 일하면서 배우는 과정에 최첨단과학기술을 소유할수 있게 하는 좋은 방법이라고 하시였다.

도안창작실도 잘 꾸려놓았다고 하시면서 화장품은 질이 좋아야 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용기의 모양과 상표, 포장팩이 눈에 확 안겨오면서도 구매자들의 리용에 편리하게 만들어야 하는것만큼 좋은 도안들을 창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새로 내온 화장품연구소와 화장품분석소에 현대적인 분석 및 측정, 실험설비들을 갖추어놓고 화장품과 원료들의 정성, 정량분석, 유해물질검출, 작용효과성을 과학적으로 평가할수 있게 하였으며 로화방지크림, 미백살결물, 여드름치료크림, 머리칼고착제 등을 새로 연구개발하였는데 평양화장품공장은 과학연구와 생산이 일치된 기술집약형산업의 본보기공장, 우리 나라 화장품산업의 중심으로 전변되었다고 하시였다.

평양화장품공장에서 생산하고있는 화장품들의 가치수도 많고 질도 좋을뿐만 아니라 용기의 모양은 물론 포장팩들도 참 곱다고 못내 기뻐하시면서 보다 아름다워지려는 녀성들의 꿈을 실현시켜줄수 있게 되었다고, 현대화, 과학화, 공업화

된 공장에서 쏟아져나오는 세계적수준의 화장품을 받아안고 좋아할 우리 녀성들, 우리 인민들을 생각하니 정말 기쁘다고 긍지에 넘쳐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평양화장품공장이 생산구역, 교양구역, 생활구역이 명백히 구분되고 모든 건축물들이 녹색형, 에네르기절약형으로 꾸러졌으며 그 어디를 둘러보아도 종전의 모습을 전혀 찾아볼수 없게 완전히 때벗이 하였다고 하시면서 공장을 먼 후날에 가서도 손색이 없도록 세상이 보란듯이 번듯하게 개건해놓으니 정말 기분이 좋다고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화장품은 날로 높아가는 우리 인민들의 문화생활에서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소비품의 하나이라고 하시면서 우리 사람들의 기호와 특성, 다양한 취미에 맞고 세계적으로 이름난 화장품과 당당히 경쟁할수 있는 여러가지 종류의 화장품을 더 많이 생산할데 대한 문제, 이바진 공정을 찾아내어 생산공정을 더욱 완비할데 대한 문제, 다른 나라 화장품산업의 현황자료들과 발전방향을 연구하고 전망적으로 우리 나라 화장품공업에 더 높은 단계에로 추켜세울데 대한 문제, 원료, 자재, 첨가제의 국산화비중을 최대한 높이며 여러가지 향료를 원만히 보장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을데 대한 문제 등 공장앞에 나서는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고 2단계 생산공정현대화과업을 현지에서 직접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 평양화장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인민들에게 질 좋은 화장품을 안겨주기 위한 투쟁에서 계속혁신, 계속전진해나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본사기자



고려의 역사를 빛내주시어

민족은 역사속에 존재하며 역사와 더불어 발전한다. 조선민족은 유구한 역사를 가진 슬기로운 민족이다. 그러나 민족의 자랑스러운 역사는 지난날 심히 외곡되어 오랜 세월 빛을 잃었다.

나라와 민족을 열렬히 사랑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어 조선민족은 지난날 사대와 교조에 헤매던 부패무능한 봉건통치배들에 의하여 민족의 역사가 흐려지고 외세의 악랄한 민족말살책동에 의하여 약탈한 유구한 역사의 명맥을 되찾고 민족의 슬기와 존엄을 만방에 떨치게 되었다.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귀중히 여기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신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만리명경의 통찰력, 불멸불후의 정력적인 사색과 탐구로 민족의 원시조를 찾아주시었고 천년강국 고구려건국년대를 바로잡아 주시었다.

그이께서 현세대뿐아니라 이 땅에서 영원히 조선민족으로 살아가야 할 후손들을 위하여 자신의 신성하고도 중대한 민족사적과제로 내세우시고 빛나게 해결하신 역사적업적의 갈피에는 고려대조 왕건에 대하여 주체적립장에서 재평가하신 이야기도 있다.

918년부터 1392년까지 존재한 고려의 건국자 왕건에 대한 평가는 민족사에 존재한 역사적인 인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첫 통일국가의 역사에 대한 평가 문제로 된다.

우리 민족사의 정통성은 고려로부터 고려로 이어지는 역사의 흐름속에 있다. 외국어로 조선을 뜻하는 《코레아》, 《코리아》, 《코레아》도 고려라는 말에서 나왔다. 이것은 오래전부터 세계에는 고려라는 이름이 널리 알려져있었고 고려사가 우리 민족사의 원출기로 되고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918년 왕건에 의하여 성립된 고려는 935년에 신라의 투항을 받아내고 936년에는 후백제를 무력으로 통합하는 한편 926년 발해가 망한 다음 그 유민들을 받아들이고 고구려의 옛땅인 서북지방을 차지하여 첫 국토통일을 실현하고 민족의 통일적발전의 길을 열어놓았다.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고려대조인 왕건은 우리 나라에 첫 통일국가를 세운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역사가들에게 고려 역사를 재평가하는데서 제기되는 원칙적문제들을 밝혀주시고 왕건왕릉도 개건하도록 할데 대한 과업을 제시하시었다. 주제82(1993)년 1월 왕릉형성안과 돌조각축소모형을 보신 주석님께서서는 왕릉의 규모와 크기는 역사주의원칙에서 왕이 사회력사발전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정하도록 하

여야 한다고 하시었다. 역사유적유물을 개건복원하는데서 역사주의원칙을 지키며 과학성과 진실성을 보장해야 한다는것은 위대한 주석님께서 일관하게 강조하신 문제이다.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의 깊은 관심과 발기에 따라 시작된 왕건왕릉개건은 이듬해 1월 완공되어 왕건의 생일날에 의의있게 개건식을 하게 되었다. 고려의 역사를 빛내이며 왕건의 공적을 내세워주시려는 위대한 수령님들의 숭고한 민족애에 의하여 왕건의 체취가 스민 옥새와 왕씨가문목보가 600여년만에 빛을 보게 되는 전설같은 일도 있게 되었다.

왕건은 우리 나라 첫 통일 국가인 고려를 창건한 시조왕인데 왕릉이 초라하다고 하시고 태조왕릉을 그대로 두면 태조왕은 누워서도 우리를 욕할

것이라 하시며 태조왕릉을 시조왕릉답게 훌륭히 개건하도록 하신 주석님의 숭고한 은공에 감복한 왕씨가문의 후손들이 대대로 간수하여온 왕씨가문보와 옥새를 주석님께 삼가 올리었던것이다.

고려의 녀이 깃든 왕씨가문의 역사유물을 보시고 시대가 좋으니 참으로 희한한 일이다 있다고 기뻐하시며 고려태조의 공을 다시금 높이 평가하신 주석님께서서는 고려가 우리 나라의 첫 통일국가였기때문에 자신께서는 통일된 우리나라의 이름을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할데 대한 문제를 제기하였다고 뜻깊은 교시를 하시었다.

주석님께서 통일국가의 이름을 우리 민족사의 첫 통일국가의 국호를 달아 정하신것은 우리 민족의 정통을 이어 민족의 유구성을 면면히 이어가도

록 하시려는 깊은 뜻에서 출발한것이였다.

고구려중심, 고려중심의 민족사의 흐름이 확고히 정립되게 된데는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애국애족의 높은 뜻과 현명한 령도가 깃들어있다.

일찍부터 역사연구에서 나서는 모든 문제를 주체적관점과 립장에서 고찰하고 분석평가하도록 하시고 우리 민족의 역사를 옹고 정립체계화하도록 하신 장군님께서서는 역사학계에 오래동안 굳어져있던 《신라에 의한 삼국통일론》을 주체적립장에서 재검토하고 통일국가형성문제를 바로 해명하도록 정력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그의 비범한 예지와 과학적인 연구분석, 심오한 통찰력에 의하여 《신라정통설》의 부당성이 전면적으로 론증되게 되었다.

참으로 위대한 주석님과

위대한 장군님은 세월의 이끼와 풍운속에 사라져가던 역사적사실들과 사건들을 정확히 밝혀내시고 외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정립체계화하시어 민족의 역사를 빛내주시는 절세의 애국자이시고 민족의 위대한 어버이이다.

위대한 수령님들의 사상과 뜻을 이어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서는 민족유산보호사업은 우리 민족의 역사와 전통을 빛내이는 애국사업이라고 하시며 이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시고 현명하게 령도하고계신다. 그이께서는 역사유적유물들을 원상대로 잘 보존관리하도록 하는 문제, 민족전통을 적극 살려나가도록 하는 문제 등 민족유산보호에서 나서는 과업들을 구체적으로 가르쳐주시었다.

하여 공화국에서는 고려사연구와 유산보호사업을 비롯하여 민족문화유산을 아끼고 보호관리하는 사업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신기복



고려대조 왕건왕릉개건비



왕건왕릉

승리의 영마루를 향해 내달린다

지금 공화국의 각지 인민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지도밑에 진행된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2차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과업관철에 한 사람같이 떨쳐나섰다.

모두의 가슴마다에는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기며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최후승리의 그날을 앞당겨오야 말 신심과 용기가 새차게 끓어번지고있다.

미국을 비롯한 적대세력들의 극악무도한 제재압살소동을 짓부셔버리며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에서 보다 큰 전진의 자욱을 새겨가고 있는 공화국의 인민들이다.

자기의 힘과 기술에 의거하고 원료, 자재를 자체로 해결하여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넘쳐수행한 단위들이 날로 늘어나고있으며 인민경제 모든 부문들에서 증산의 동음이 높이 울리고 있다.

조선인민군 제810군부대 산하 1116호농장의 호뜻한 농사작황과 황해남도 파일군의 회한한 파일대풍, 류원신발공장, 평양화장품공장 같은 경공업부문에서의 증산 등 훌륭한 성과들은 그 단적인 실례이다.

인민경제 여러 부문들에 대한 전국적인 과학기술발표회와 과학기술훈포전시회들이 연이어 열리고 어디서나 자기의 지혜와 힘으로 세계를 앞선가려는 과학기술창조열풍이 새차게 일고있다.

조선로동당이 제시한 병진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도 줄기차게 진

행되어 나라의 방위력이 더한층 강화되고있다.

지금 미국과 추종세력들은 공화국의 자위적조치와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대조선적대시정책에 집요하게 매달리면서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감행하고있다.

지난 10월에도 미국은 남조선군부호전광들과 야합하여 조선동해와 서해에서 북침을 가한 최대규모의 연합해상훈련을 벌여놓고 미해군특수부대의 《참수작전》훈련도 진행하면서 대조선군사적압박소동에 전례없이 광분하였다.

미국대통령의 아시아행 각기간 3척의 미핵동력항모함대단들을 조선반도수역에 끌어들여 합동훈련을 실시하려 하고있는것은 미국의 무분별한 전쟁광기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보여주고있다.

현실은 공화국을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고립압살하려는 미국의 야망은 추호도 변함이 없다는것을 똑똑히 새겨주고있다.

주권국가를 상대로 《완전과파》라는 너두리질을 마구 해대고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고 무분별한 전쟁소동을 벌리는 미국에 대한 공화국 군대와 인민의 증오와 징벌의지는 하늘땅에 가득 차넘치고있으며 세기를 이어오는 반미대결전을 최후승리로 결속하려는 조선의 결심과 의지는 더욱 굳건한것으로 되고있다.

누구도, 그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써도 자기의 자주권과 생존권, 발전권을 수호하기 위하여 군대와 인민이 령도자의 두리에 굳게 뭉쳐 폭풍쳐 내달리는 조선의 영웅적기상을 당해낼수 없으며 굴복시킬수도 없다.

최후승리는 정의의 힘을 지닌 조선에게 있다.

본사기자 김철진

령장의 담력과 지략 (2)

빈말을 모르는 조선

조선에서 미국의 무장간첩선 《푸에블로》호가 나포된 때로부터 1년 수개월이 지난 1969년 4월 미국 대형간첩비행기가 공화국영공에 침공하자마자 영용한 인민군비행사들에 의하여 일격에 격추되였다.

조선에서 미국간첩비행기를 격추한 사실이 알려지자 세계의 언론들은 《날아가는 《푸에블로》호가 격추되였다.》, 《해군정보수집선 《푸에블로》호가 북조선에 나포된지 불과 1년 수개월만에 미국의 대형정찰기 1대가 북조선의 포화에 격추되어 닥스행정부는 중대한 사건에 직면하게 되었다.》고 보도하였다.

세계면전에서 또다시 참패를 당한 미국은 늘 하던 상투적수법대로 저들의 정찰기가 《공해상공》에서 종사하다가 격추당하였다고 하면서 도적이 매를 드는 격으로 조선의 자위적조치를 두고 《침략행위》라고 떠들었다. 미국의 전쟁광신자들은 또다시 조선반도에 전쟁위험을 조성하였다.

세계는 《푸에블로》호사건때에는 미국이 포로송환때문에 굽어들었지만 이번에는 비행기가 통채로 바다에 처박혀 걸어들것도 없게 되어 그야말로 《보복》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격추사건을 지켜보고있었다.

미국에 의해 조선반도에서 각각각 전쟁위험이 짙어 가던 그때 강철의 령장이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서는 우리는 미제국주의자들의 그 어떤 침략책동이나 위협공갈에도 절대로 무릎을 꿇을수 없다, 우리는 미제침략자들에게 절대로 굴복하지 않을뿐아니라 적들이 위협공갈하는것을 보고 가만히 있지 않을것이다, 만일 적들이 우리를 건드리며 접어든다면 우리는 용감히 맞받아 싸울것이라고 언명하시었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서는 적들의 그 어떤 군사적 위협도 우리를 놀래울수 없다고, 우리는 수령님께서 단호히 선언하신것처럼 적들의 《보복》에는 보복으

로, 전면전쟁에는 전면전쟁으로 대답할것이라고 천명하시었다. 미국이 침략전쟁의 도화선에 불을 단다면 맞받아나 총결산을 지으려는 강인담대한 결단과 의지를 피력하시었던것이다.

그런데도 분별을 잃은 미국은 앞으로도 정찰비행을 계속하겠다고, 그 정찰비행에는 무장보호기들을 붙여 일것이라고 떠들었고 차후 사태발전은 북조선의 반응여하에 달려있다고 위협해나섰다. 그리고는 몇달후인 8월 군용비행기 《OH-23G》를 군사분계선너머 공화국영내에 깊숙이 침입시켜 공중정탐행위를 또다시 감행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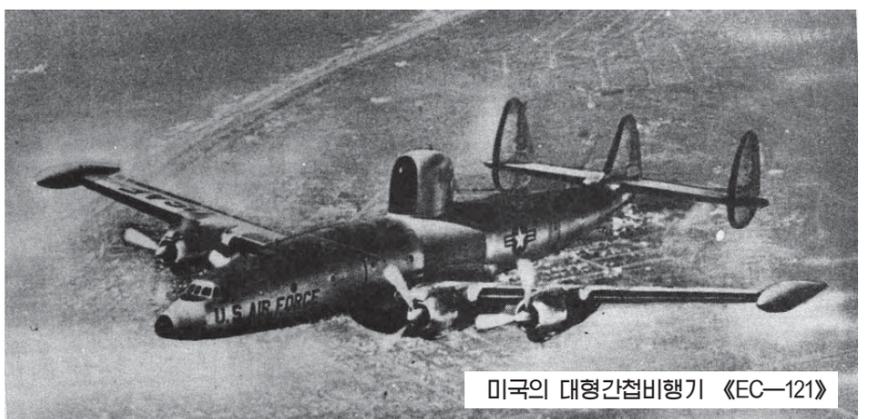
그러나 인민군대의 자위적조치에 의하여 공중비행은 단매에 요정나고 승무원들은 포로되였다.

공화국의 단호한 강경대응에 기가 눌린 미국은 그해 말 저들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죄하지 않을수 없었다.

《...군용비행기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령공권이 침입시킴으로써 정전협정을 위반하였으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자주권을 엄중히 침해한데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이에 엄숙히 사죄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범죄행위를 다시는 하지 않을것과 정전협정을 엄격히 준수할것을 확고히 담보한다.》

세계는 침략자, 도발자들에게 무자비한 징벌만을 안길것이라고 한 조선의 선언이 결코 빈말이 아니라는 것을 똑똑히 확인할수 있었다.

본사기자 주일봉



미국의 대형간첩비행기 《EC-121》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명언

《나라가 흥하면 노래 소리가 높기 마련이다.》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이 명언에는 나라가 흥할수록 좋은 노래가 많이 창작되고 불리우게 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다.

노래는 현실에서 느끼는 정서적 체험, 심리적 충동에서 오는 감정정서를 표현한다. 그래서 인간생활에서는 슬픔을 당하였을 때 슬픈 노래가 나오고 즐거운 일을 할 때는 흥겨운 노래가 나오는 것이다.

나라가 망하면 노래소리가 구슬퍼지고 나라가 흥하면 노래소리도 흥겨워지고 높아지기 마련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숭고한 인민사랑, 미래사랑에 의해 인민의 꿈과 이상이 현실로 펼쳐지고있는 공화국에서는 어디서나 인민들의 행복넘친 노래소리가 높이 울려나오고 있다.

최근에도 공화국에서는 판록있는 예술단체들인 공훈국가합창단, 모란봉악단, 왕재산예술단의 음악무용종합공연이 여러 지방들에서 련속 성황리에 진행되어 사회주의강국건설에 떨쳐나선 인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념과 락관을 안겨주고 있다.

자위의 핵억제력을 최대로 강화하여 인민들의 운명과 후손만대의 행복과 번영을 지켜

주며 인민들이 하루빨리 최상의 문명을 최고의 수준에서 누리도록 해주시려는 것이 인민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숭고한 뜻이고 의지이다.

하기에 그이께서는 낮이나 밤이나, 곳은 날 마른날 가림없이 국방력강화와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현지지도의 길을 쉬임없이 이어가고 계신다.

또한 자력자강의 기치밑에 나라의 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고 인민을 위한 건설의 대전성기가 펼쳐졌으며 공장, 기업소들이 현대화되는 속에 각종 질 좋은 국내산 제품들이 쏟아져나와 인민들의 호평을 받고 있다.

자위의 핵이 나라와 인민의 운명과 천만년 밝은 미래를 역세게 지켜주고 인민이 세세년년 바라오던 꿈과 이상들이 하나둘 빛나는 현실로 펼쳐지고있으니 어찌 사람들이 격정과 흥분을 토로하지 않을 수 있고 노래가 울리지 않을 수 있으랴.

절세위인을 모시여 흥하는 이 나라에 인민이 부르는 존엄의 노래, 행복의 노래가 높이 울리고있는 것이다.

송명수



한평생 인민의 복리향상을 위하여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께서 80고령이 넘으신 때에도 과수업발전을 위하여 로고와 심혈을 기울이시었다.

주제 82 (1993)년 5월 어느날이

였다. 그날 주석님께서서는 평양에 있는 한 과수농장을 현지지도하시었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사과꽃, 배꽃, 복숭아꽃, 추리꽃이 만발한 과수원을 둘러보신 주석님께서서는 과일발면적과 과일달리는 면적을 일일이 알아보시었다. 이어 그이께서는 일군들에게 과일달리는 면적을 늘이자면 그루바꿈을 잘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과수전문가이상으로 그 방

법에 대하여 명료하게 가르쳐 주시었다. 과수재배에서 비료와 거름주기를 잘하도록 할데 대하여서도 이리시고 사과나무 밑에 딸기를 심어 풀이 돌아나지 못하게 하면 평떡고 알먹는

주제 82 (1993)년 5월 어느날이

셈이 된다고도 하시며 과수학 강의하시듯이 과일생산을 늘이기 위한 방도적문제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었다.

그러시고나서 이번에는 과일공급과 관련한 문제를 화제에 담으시었다.

그이께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어린이들을 국가가 맡아키우고 어린이들을 많이 생산하여 어린이들에게 먹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수첩을 꺼내드시

고 그 량을 계산해보시었다. 먼저 평양의 탁아소, 유치원, 인민학교(당시), 중학교 학생수와 과일량을 타산해보신 주석님께서서는 앞으로 전국의 모든 아이들에게 공급할 계획

에 대하여서도 가르쳐주시었다. 어

린이들이 하루에 먹을 과일량까지 정하신 그이께서는 추리, 살구, 복숭아같은 계절에 따라나는 과일은 그때그때 수확하여 보내주고 사과나 배같은것은 매일 얼마씩 차려지게 하여야 한다고 세심히 이리시었다.

이렇게 되어 어린이들에게 첫물과일은 물론 계절에 관계없이 과일이 공급되게 되었다.

본사기자

숭고한 민족애와 동포애

민족의 녀과 애국심을 잊지 않으시고

몇해전 평양에서 있던 제29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국제고통련예술단 단장 김울리샤동포도 참가하였다. 우리와 만났을 때 그는 동포사회에서 예술활동을 활기차게 벌리고있는데 대하여 들려주었으며 재조조선인로병회 고문이었던 박영빈동포에 대하여서도 많은 이야기를 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님과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의 숭고한 믿음과 사랑속에서 고국과 슬결을 함께 하며 민족을 위한 길에서 생의 자욱을 남긴 박영빈동포이다.

주제 79 (1990)년 8월이었다. 우즈베키스탄의 마슈켄뜨에서 살고있던 박영빈동포는 꿈결에도 잊은적 없는 고국을 방문하게 되었다. 재조조선인조국방문단의 일원으로 조국땅을 밟는 그의 감회는 컸다. 낮익은 평양과 지방의 도시와 마을들은 너무도 몰라보게 변모되어있었다. 백문이 불여일견이라고 듣던 바대로 자주로 존엄높고 자립으로 번영하고 자위로 강대한 고국, 주석님과 인민이 혼연일체를 이룬 주체의 사회주의 조국의 실상을 온몸으로 실감하였다.

그러던 어느날 그는 동포들

과 함께 영광스럽게도 위대한 주석님을 만나뵈게 되었다. 오매에도 그리던 주석님을 뵈옵는 재조조선인로병들의 기쁨과 감격은 이루 형언할수 없었다. 그날 한사람한사람 뜨거운 동포애의 정으로 반가이 맞아주신 주석님께서서는 감회깊은 추억을 떠올리시며 여러분들은 조국땅우에 공화국을 세우고 조국해방전쟁때에는 피로써 우리 혁명의 전취물을 사수하기 위한 투쟁을 벌렸다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준엄하였던 력사의 나날을 회고하시며 자기들의 옛 공로를 잊지 않으시고 과분한 치하를 하시는 주석님의 고매한 덕망에 그들모두는 눈시울 적시며 솟구치는 걱정을 누를 길 없었다. 화기에애한 동포애가 차넘치는 자리에서 박영빈동포는 위대한 주석님께 삼가 다함없는 감사의 인사를 올리었다.

만면에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동포의 진정을 고맙게 받으신 주석님께서서는 그의 손을 잡

으시고 박영빈동무는 나의 동지이며 전우이며 친우이라고 뜨겁게 교시하시었다. 주석님의 대해같은 믿음과 과분한 은총에 접한 박영빈동포에게는 해방후 새 조국건설과 조국해방전쟁 그리고 전후시기 조국에서 생활한 가지가지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떠올랐다. 힘있는 사람은 힘으로, 지식있는 사람은 지식으로, 돈있는 사람은 돈으로 새 조국건설에 기여할데 대한 주석님의 애국의 호소에 호응하여 고국에서 후대교육과 문화예술활동에 종사한 일들이 어제일처럼 방불하게 돌이켜졌다.

고국에서 주석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며 생활하는 나날 그이 아시아말로 조국과 민족에 대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성, 승리에 대한 확고한 믿음과 고난을 맞받아나아가는 완강성을 지니신 회세의 위인이시라는것을 온몸으로 느낀 박영빈동포였다. 그만이 아니라 황성복, 장철을 비롯한 모든 동포들이 잊을수 없는 지난날을 더

듬으시며 따뜻한 정을 부어주시는 주석님의 숭고한 덕망과 인품에 감심하여 감사의 절을 올리었다.

위대한 주석님께서서는 박영빈동포를 비롯한 그들모두를 일별하시며 부인들은 잘 있는가, 자녀들은 몇이며 조선말을 아는가고 일일이 안부도 물으시고 생활형편도 각근히 알아보시었다. 그들과 함께 뜻깊은 기념사진도 찍으신 주석님의 사랑은 오래동안 객지생활을 하다 돌아온 자식에게 정을 기울이는 친부모의 사려깊은 보살핌 그대로였다.

그날 주석님께서서는 박영빈동포의 건강에도 특별히 원심을 기울이시었다. 그의 인자하신 친화력에 끌려 박영빈동포는 체중이 얼마이며 심장부담이 크다는데 대하여 무림없이 말씀드리었다.

주석님께서서는 그에게 지금 83살인데 앞으로 10년은 더 일할수 있다고 하시면서 그러자면 운동을 많이 하여야 한다고 그의 신상을 넘려하시었

다. 그러시고는 실내자전거로 15분씩 운동하면 하루 30리 활보한것으로 된다고 하시면서 운동기구의 용도와 리용방법에 대하여 손수 알려주시었다. 주석님의 뜨거운 동포애와 장군님의 각별한 관심에 의하여 박영빈동포는 운동용실내자전거를 받아안게 되었다.

주석님께서 아끼고 사랑하시는 박영빈동포를 비롯한 해외동포들을 위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배려는 실로 극진하고 세심하였다. 오래간만에 고국을 찾는 해외동포들의 년로한 몸을 고려하여 체류일정과 방문로정을 정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보살펴주신분도 장군님이시며 박영빈동포에게는 양복을 비롯하여 그의 기호에 맞는 옷가지들을 일식으로 배려하여주시고 옛 시절 군복을 입었던 다른 동포들에게는 한등급 높은 군사칭호를 수여하도록 해주신분도 위대한 장군님이시었다. 전후부구건설시기 박영빈동포의 건강을 넘려하시어

외국에서 치료받도록 조치하시고 몸소 생일상도 차려주신 주석님의 사랑그대로였다. 지난날의 자그마한 공적도 잊지 않으시고 전승 40돐이 되는 때에는 이역에 사는 자기에게 공화국의 훈장을 수여하도록 하신 위대한 장군님의 고결한 의리와 숭고한 동포애는 박영빈동포가 말년까지 동포사회의 화목과 단합, 고국의 번영과 민족통일을 위한 길에서 보람찬 생을 살게 한 마음의 기둥이었다.

하기에 그는 동유럽의 여러 국가들에서 사회주의가 좌절봉피되고 인민들의 운명이 불행을 당하는 비참한 현실을 목격하면서 위대한 수령님들의 령도밑에 주체의 사회주의를 고수하고 빛내여나가는 고국의 모습에서 힘을 얻고 동포들속에서 우리 말과 글을 잃지 말며 춤과 노래도 우리의것을 배우고 조상전래의 민족적전통과 풍습을 면면히 이어나가도록 하는데 자기의 열과 정을 다 바치었다.

고국을 사랑하라! 이것은 그의 량심이고 생활의 전부였으며 90고령의 나이에 운명하면서 자기의 자녀들과 새 세대 동포들에게 남긴 말이다.

본사기자 리 설

강대국가의 《미치광이전략》을 력사의 무덤속에 처박아야 한다

지금 세계는 트럼프라는 최대의 《정치이단아》로 하여 전례없는 진통을 겪고있다. 탐욕스러운 사기협잡꾼이며 악명높은 부동산투기업자인 트럼프가 정계로 발길을 돌려 기상천외하게도 미국의 제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 그 나라는 물론 세계 이르는 곳마다에서 불안정과 혼란, 모순과 대립이 격화되고 정세가 복잡다단하게 번져지고있는것은 내외가 공인하는 사실이다.

보통의 한 인간으로서 볼 때에도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자체가 불가능한 트럼프와 같은 무지하고 포악한 늑다리가 이른바 《초대국》을 자처하는 미국의 권력을 한손에 움켜쥐고 온갖 란동을 다 부리고있는것은 세계적인 정치비화가 아닐수 없다.

더우기 문제로 되는것은 트럼프가

《미치광이전략》은 미국의 단골전략

지금 일각에서는 트럼프가 세계정치무대에서 일찌기 있어본적이 없는 험악한 폭언을 탐발하고 국제법과 합의를 제멋대로 짓밟으며 경악스러운 광태를 보이고있는 원인을 남달리 저속하고 강대국적이며 기형적인 특질에서 찾고있다.

물론 그럴만도 하다. 그로 말하면 어릴 때부터 자기를 배워주는 선생을 마구 구타하여 학교에서 쫓겨난 불망나니였고 돈많은 애비의 그늘 밑에서 사기와 협잡박에 익힌것이 없는 소문난 부랑아였다. 오죽하면 애비가 속을 태우면 나머지 그를 철저한 명령복종체제와 가차없는 못매질로 엄격한 규율을 세운다고 소문난 어느 한군사학교에까지 보냈겠는가. 하지만 제 버릇 개 못준다고 세상물정에 눈이 좀 트이게 되자 이번에는 벼락부자가 되어보겠다고 날뛰며 온갖 비열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고 상스러운 막말과 폭행으로 가는 곳마다에서 사회적물의를 일으켜온 패덕광이 다름아닌 트럼프였다. 역대 돈을 굶어모아 욕심많은 배를 불리운 다음에는 그 무슨 《미인대회》니 뭐니 하는것을 해마다 벌려놓고 그를 미끼로 술한 녀성들과 추잡한 관계를 맺어왔는가 하면 제 딸과 나이가 엇비슷한 너자를 세번째 처로 끌어들이고 그의 라체사진을 찍어 남성잡지의 표지가 될 정도로 변태적인 늑다리색마가 바로 오늘의 미국대통령 트럼프이다.

이처럼 트럼프의 미치광이증세는 병적인 측면도 있고 의도적인 측면도 있다. 그는 일찌기 제 이름으로 발표한 어느 한 도서에서 《상대에게 공포와 혼동을 일으켜 그 반응을 보는 것에 재미를 느낀다》느니, 《무명인보다 차라리 악명을 떨치는것이 손해에 비해 이익이 더 많다.》느니 하고 횡설수설해대며 세인을 아연케 한 바 있다. 인간으로서의 정상적인 사고와 생활의 궤도를 보란듯이 부정하고 파괴하는것을 업으로 삼으며 타인을 짓밟고 강탈하여 끝없는 탐욕을 충족시키는데서 쾌락을 찾아온 이런 말세적적폐물이라는 그 어디에 가서든 선뜻 찾아보기 힘들것이다.

오죽하였으면 미국의 어느 한 정신의학박사가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신상태를 진단하지 않는다는 전례를 깨고 트럼프의 이중인격적인 말과 행동을 분석하여 과대망상증환자와 비슷한 《정말로 정신건강이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라고 공개하였겠는가. 사실들은 트럼프야말로 인간성상에서는 마땅히 추방하거나 사회적으로 매장하여야 할 천하불한당이라는 것을 여지없이 증명해주고있다.

하지만 탐욕과 변태에 물젖고 도박과 강탈이 체질화된 강대국동맹같은자에게 감히 대통령감투를 씌워 오늘과 같이 국제정치무대에서 활개치게 해준 나라는 다름아닌 미국이다. 아메리카원주민들을 무차별적으로 학살하고 그들의 해골우에 세워진 강도의 나라, 아프리카흑인노예들의 고향을 거름삼아 성장하고 침략과 전쟁, 살륙과 약탈의 피비린 력사속에 《초대

미국대통령이라는 《특권》을 등대고 인류사회의 보편적질서와 규범을 전면부정하는 《미치광이전략》을 공공연히 추구하면서 분별없이 날뛰고있는것이다. 폭력배두목을 런상케 하는 거친 언사와 앞뒤가림없는 증혹적이며 위협적인 망동으로 상대에게 공포와 불안을 조성하고 그를 리용하여 자기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있는 트럼프식미치광이정치가 세계에 미치는 영향과 후과는 자못 심각하다.

트럼프는 과연 세간의 평가대로 모 든것이 비정상인 미치광이인가 아니면 일부러 미친척하는 어리광대인가.

이 불한당의 손탁에 제정신없이 놀아나는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미치광이전략》의 실체를 똑똑히 파헤쳐 볼 필요가 있다.

《미치광이전략》은 미국의 단골전략

국》의 몸통을 불귀은 강대국가, 돈을 위해 살고 돈에 목숨을 거는 황금만능의 썩어빠진 사회인 미국이야말로 사실상 트럼프라는 거물급미치광이를 배양하고 자래운 악마의 대지라고 해야 할것이다.

트럼프에게 남달리 히스테리적광기가 있다고는 하지만 《미치광이전략》은 그가 처음으로 고안해낸것이 결코 아니다.

《미치광이전략》이라는것은 따져 놓고보면 이미 오래전부터 선민자들에 의해 애용되어온 미국의 단골전략이었으며 이 말을 처음 만들어낸것은 1970년대 《미국의교의 대부》로 알려진 전 미국무장관 키신저라고 한다.

《우리가 미칠수도 있고 예측이 불가능하며 가공할 파괴력을 구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하게 한다면 상대는 겁에 질려 우리의 요구에 순응할것》이라는게 키신저가 제창한 이른바 《미치광이이론》의 골자이다.

《미치광이전략》의 피해자는 뒤걸음치는자들이다

미친개는 사람 골라가며 물지 않으며 눈앞에서 뒤걸음치는자를 먼저 물어메치는 법이다. 이것은 트럼프행정부의 《미치광이전략》이 본격가동에 들어가면서 그 피해의 규모와 범위가 크고작은 나라들에 관계없이 날로 확대되고있는 오늘의 현실이 말해주는 교훈이다.

인간의 생명과 존엄에 대한 존중이란 안중에도 없는 트럼프는 집권하기 바쁘게 《핵무기가 더 많이 있으면 좋겠다.》고 뇌가리며 미국의 국방비부터 대폭 늘이고 대량살상무기현대화에 박차를 가하고있다. 백주에 주권국가에 대한 미사일공격과 초대형 폭탄투하를 감행하여 전세계를 불안과 공포에 몰아넣었는가 하면 치열한 군비경쟁을 촉발시켜 인류의 머 리우에 참혹한 재난의 불구름을 몰아오고있다.

트럼프행정부의 《미치광이전략》이 적용되는 대상이 우리 공화국과 같이 극단적대대관계에 있는 나라일 것이라고만 생각하면 큰 오산이다.

트럼프가 제창하는 《미국우선주의》, 《미국제일주의》 구호밑에 유럽과 일본, 남조선을 비롯한 손아래 동맹국들이 미국산 무기구입비용을 더 늘일것을 강요당하고 미국에 불리하다고 여겨지는 여러 경제무역협정들이 폐기되거나 완전히 뒤집혀질 운명에 처하였다.

결국 《미치광이전략》은 미국의 적대국들뿐아니라 동맹국들, 제 집안 측근들도 가리지 않고 적용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있다.

줄것은 다 주고 뺨맞는 가련한 창녀신세가 된 남조선피뢰들의 참담한 처지를 직시해보면 잘 알수 있다.

트럼프의 북침전쟁광언에 화들짝 놀라 수백억US\$를 섬겨바치며 《전쟁만은 안된다.》느니, 《군사적행동의 철저한 공조》니 뭐니 하고 애걸복걸하기도 하고 그 무슨 대조선 《초강도제재압박》 조치에 선참으로 박수를 치며 《한반도안전자론》에

침략과 약탈에 이골이 난 날강도제국의 외교관다운 이러한 망말은 미국이라는 나라의 길지 않은 력사를 관통해온 침략교리였고 대외정책적 기초였다.

단적인 실례로 1953년 5월 아이젠하워는 조선전쟁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국무장관 덜레스를 내세워 전쟁이 조기에 종결되지 않으면 핵무기를 사용할것이라고 공갈하였으며 1969년 월남전쟁에서 궁지에 몰려있던 닉슨은 북부월남과 이전 소련에 대한 무차별적인 핵위협공갈을 골자로 하는 《미치광이작전》을 벌리었다.

저들에 대한 두려움과 전쟁공포감을 조성하여 다른 나라들에 대한 지배와 간섭, 침략과 약탈의 목적을 손쉽게 이룩하고 더 많은 살인장비를 팔아먹는것이야말로 지금까지 미국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써먹어온 상투적인 수법이였다.

결국 《미치광이전략》은 미국이 일관하게 추구해온 힘의 정책에 기초한 강권과 전횡, 공포의 극대화전략이다. 다만 악마의 제국이 날로 쇠퇴해가는 저들의 목숨을 어떻게 하나 연장하기 위해 내세운 트럼프가 자신의 광신적기질과 절묘하게 부합되는 이 《미치광이전략》에 누구보다 매력을 느끼고 《미국우선주의》를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삼고있을뿐이다.

지구상에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이 존재하고 각 국가마다 생존과 발전을 위한 전략들도 천차만별이다. 그러나 《미치광이전략》과 같이 인류공동의 보편적가치를 부정하고 평화와 안정을 파괴하며 저들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고의적으로 조장하는 것으로써 독점적지위도 유지하고 이익도 극대화해보려는 사악무도한 흉계를 국가정책으로, 전략으로 삼고있는 미국과 같은 위험천만한 존재는 찾아볼수 없다.

대한 지지를 구걸하였지만 차례진것은 《전쟁이 나도 한반도에서 나고 죽더라도 거기서 죽을것》이라는 야비한 대담뿐이였고 괴뢰들을 제쳐놓고 미국단독으로 벌려놓은 전략폭격기 《B—1B》편대의 조선반도출격소 동이였다. 지어 남조선당국을 《북에 대화를 구걸하는 거지갈다.》고 내놓고 멸시하여 주구의 간을 말리우고있다. 조선반도정세긴장을 구실로 파철이나 다름없는 중고무기들을 강매하여 수백억US\$를 수탈하는것도 모자라 저들에게 유리하게 되어있는 《한미자유무역협정》마저 《최악의 협정》이라고 떠들어대며 《내가 너무 미쳐서 지금 당장이라도 한국에서 손을 뗄수 있다.》고 으름장을 놓아 끝끝내 남조선당국을 재협상마당에 끌어낸 트럼프이다.

광기어린 상전의 압력이 두려워 간도 쓸개도 다 꺼내주었던만 얻은것이란 아무것도 없는 괴뢰들의 비참한 현실은 오히려 《미치광이전략》의 가장 큰 피해자가 다름아닌 미국이 하라는대로 하고 끄는대로 끌려다니는 친미추종국자들이 될것이라는 것을 명백히 예고해준다.

그렇다고 대국을 자처하는 나라들이 《미치광이전략》의 적용대상에서 제외로 되고있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미군수독점제들의 열광속에 트럼프가 아시아와 중동, 유럽의 친미추종국가들에 미친듯이 팔아먹고있는 수천억US\$분의 살인무기들이 과연 누구를 겨냥하고있는지, 미국의 적극적인 비호조장과 함께 가속화되고있는 일본의 군국주의화와 유럽과 중동에 전개되는 미국의 전략자산들이 누구에게 직접적위협으로 되고있는지 구태어 재론할 필요가 없다.

중국이 자기 나라의 핵실험에 대한 침해라며 것처럼 반발하였던 《싸드》의 남조선배치도 빼적이 강행되었고 중국남해에서의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은 핵동력항공모합까

지 동원하여 더욱 위협적으로 한달에 2~3차례나 진행되고있으며 《전략적동반자》라는 허울좋은 간판뒤에서 대중국금융제재와 무역전쟁도 이미 현실화되고있다. 로씨야 역시 우방국이라고 하는 수리아에 대한 기습적인 미사일공격과 새로운 대로씨야제재법안의 채택과 같은 미국의 광기어린 도전과 도발에 직면하고있다.

이뿐이 아니다. 흉포무도하고 무지막지한 트럼프는 국제기구와 질서, 규범도 거치장스럽다고 여겨지면 제멋대로 탈퇴하고 뜯어고치는 것쯤은 식은죽먹기로 여기고있다. 《지구온난화는 미국산업계에 피해를 주기 위해 지어낸 거짓말》이라는 꾀변을 늘어놓다못해 지난 6월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가 서명한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에서 공식 탈퇴한데 이어 얼마전에는 저들이 다른 나라보다 재정적부담을 더 많이 걸머진다는 부당한 구실을 들어 유엔교육과학문화기구에서까지 탈퇴하는 무례한것도 꺼리낌없이 저질렀다. 너무도 예측불가능하게 번져지는 사태앞에서 경악을 금치 못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오히려 너털웃음을 짓고있는 미치광이 트럼프의 흉포스러운 상통을 상상해보라.

이것이 바로 양키제국과 그 최고통수권자의 진면모이다.

《미치광이전략》의 패배는 력사의 필연

지금 트럼프행정부가 추구하는 《미치광이전략》이 우리를 기본과 녀으로 하고있으며 그것을 실현하기 위해 고안해낸 모든 수단과 방법들이 우리를 굴복시키는데 총집중되고 있다는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트럼프가 유엔무대를 비롯한 공식 석상들과 지어 개인트위터까지 동원하여 《화염과 분노》, 《북완전과포》, 《전쟁불사》, 《폭풍전교역》, 《단 한가지 방법》 등 북침핵전쟁을 기정사실화하는 흉악무도한 광언을 쏟아내는 가운데 남조선과 그 주변수역에 미제의 핵항공모함라격단들을 비롯한 방대한 핵전략자산들이 끊임없이 밀려들고 동해상공에 날아들어 그 무슨 《참수작전》연습을 되풀이하며 정세를 초진장상태에 몰아넣고있다. 《북의 숨통을 완전히 막는 초강도제재결의》라는것을 한달이 멀다하게 조작해내고 크고작은 나라들을 위협공갈하여 사상최악의 정치경제적붕쇄를 시도하고있다.

우리는 트럼프가 당장 무슨 일이라도 칠듯이 고아대면서 피눈이 되어 날뛰는 리면에 무엇이 있는지 꿰뚫어 보려고도 남음이 있다. 날로 강화되고 최종완성의 경지에 보란듯이 올라선 우리의 국가핵무력이 제놈의 목을 겨누는 비수처럼 느껴지고있을것이다. 평생의 목표로 삼고 간신히 기어오른 백악관주인자리에서 가장 비참한 패배자의 오명을 쓰고 불운하게 밀려날수 있다는것을 예감하고있을것이다. 그래서 더욱 계거품을 물고 우리의 《위협》을 떠들며 주대없고 어수룩한 어중이며중이들을 잔뜩 굶어모아 우리와의 최후대결에 방패처럼 내세우고있을것이다.

하지만 세기를 이어오는 날강도 미제와의 대결에서 백승의 전통만을 아로새겨온 우리에게는 국제사회가 그처럼 두려워하는 트럼프의 짓거리가 무뎠달려 숨넘어가는 미친개의 지랄발광으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얼마전 트럼프가 집권초기보다 우리의 《핵문제》를 보는 분석력은 높아진 반면에 《자신감》은 떨어졌으며 심리적으로 매우 위축되어 허풍을 치거나 거짓말까지 하고있는가 하면 국제사회의 힘을 빌어보겠다고 《합심》을 운운하는데로 나가고있다는 심리분석결과가 발표되어 세간의 이목을 집중시킴이 있다. 이것은 결코 허장성세하며 거들먹거리고있지만 트럼프가 얼마나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있는가를 반증해주는 단적

미치광이가 지랄을 부리면 모두가 몽둥이를 들고 떨쳐나 두들겨패서라도 제정신을 차리게 만들거나 쫓아내는것이 상식이다.

하지만 지금 국제사회에는 세상 무서운줄 모르고 설쳐대는 불망나니의 사악한 란동에 응당한 반격을 가할 대신 그 비위를 맞추는데 급급해하는 나라들이 적지 않다. 트럼프의 망동이 인류사회의 평화와 발전에 얼마나 큰 해독을 끼치는가를 모르지 않으면서도 눈앞의 이익에 매몰되어 도의도 량심도 없이 루추하게 놀아나는 온당치 못한 행동에는 적당히 타협하고 굴종하면서 미국의 《미치광이전략》을 비껴가보려는 어리석은 기대가 깔려있다.

그러나 인류사회의 정의와 질서를 무너뜨리고 문명과 진보를 망쳐놓는 무위험의 횡포에 두렵다고 하여 양보하거나 굴종하고 타협하는것은 가장 나약하고 어리석은 처사이며 제 손으로 제 눈을 찌르는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오늘의 흥정판에 깔아놓았던 검은 마수가 레일에 있는 자신들의 목을 사정없이 조이게 될수 있으며 백악관의 미치광이거두가 날리는 화살은 그 무엇도, 그 누구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을 뻥찰한 머리로 새겨보는것이 좋을것이다.

《미치광이전략》의 패배는 력사의 필연

인 실례이다.

우리는 지금껏 미국과 상대하면서 그 어떤 리성은 고사하고 초보적인 상식도 통하지 않는 이 불량배무리를 다스리는 법을 체득하였다. 말로써는 미치광이제국과 상대할수 없으며 오직 강력한 주먹으로 제압하고 핵몽둥이로 다스려야 한다는것이 우리가 찾은 대미대응방식이다. 미국이 핵카드를 꺼내들면 핵으로 맞서고 우리에 대한 완전과포를 기도하면 그 호전광들에게 먼저 불세례를 안겨 천백배의 징벌을 가할 담대한 의지와 함께 그 실천능력이 우리에게는 완전무결하게 구비되어있다.

미국이 꺼져가는 저들의 명줄을 이 어가기 위해 내세운 늑다리미치광이가 감히 조선을 잘못 보고 잘못 건드린다면 미국은 멸망의 나라에 더 가까이, 더 빨리 다가서게 될것이다.

지금 미국내에서 그 비극적결말을 아랑곳하지 않고 반공화국대결망동에 무분별하게 날뛰는 늑다리악마를 두고 《력사적으로 대국들의 흥망성쇠는 라살로 끝났지만 트럼프는 미국을 자살로 몰고간다.》는 비명이 그칠새없이 터져나오고 있다. 트럼프가 억지로 끌어들이던 측근들마저 지금의 백악관은 동물원이나 마찬가지로 돈도 명예도 다 뿌리치고 뛰쳐나가는가 하면 미국의 주요언론들에 트럼프란핵에 필요한 《결정적증거》를 주는 사람에게 1, 000만US\$의 상금을 주겠다는 광고까지 일제히 실린것은 우연한 일이 아니다.

트럼프행정부의 이러한 말기증상은 략조가 비친 미국의 앞날에 대한 확실한 예시이다.

지성과 논리는 고사하고 자기 통제력마저 완전히 상실하였으며 주위에 미친 독소만을 전파시키는 미치광이가 갈같은 오직 죽음뿐이다.

인류의 지향과 미래를 짓밟고 자주와 진보에 도전해나선 강대국가—미국의 《미치광이전략》을 그 제창자들과 함께 력사의 무덤속에 처박을 때는 다가오고있다. 그 시각이 앞당겨질수록 지구행성은 더 평화로워지고 인류공동체는 더 건전해지며 그 발전속도는 비할바없이 더 빨라지게 될것이다.

진정으로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바라고 정의와 진리를 사랑한다면 그가 누구이든 어지럽게 소용돌이치는 시대의 흐름속에서 흑백을 옳게 갈라보고 용기있게, 주대있게 제갈길을 걸어가야 할것이다.

강철수

핵전쟁악몽에서 벗어나려면

미치광이는 어떤짓을 할지 몰라 가두어놓거나 손발을 묶어 행동을 제약하는것이 마땅한 대책이다. 최근 미국에서 언제 발작할지 모르는 《미치광이대통령》 트럼프의 광태를 저지시키기 위해 대통령의 무력사용권한을 제한하기 위한 움직임이 본격화되고있는것도 그러한 이유에서이다. 알려진것처럼 트럼프는 대통령으로 취임한 때로부터 1년도 안되는 오늘까지 별의별 해괴한 추태를 다 부러 세상사람들을 아연실색케 했다. 특히 공화국을 대상으로 트럼프는 유엔 총회장에서까지 《완전과피》니, 《절멸》이니 하는 폭언을 쏟아냈는가 하면 핵선제타격수단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수역에 날리면 불의에 핵전쟁을 일으킬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고있다. 하기에 얼마전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소속 하

의원인 60여명이 트럼프가 의회의 승인없이 북조선에 선제공격할수 없게 하기 위한 《대조선공격 금지법안》을 하원에 제출한데 이어 민주당소속 상원의원들이 같은 내용의 법안을 상원에서 발의하였다. 미국의 전직대통령들도 현직대통령에 대한 비난을 삼가해온 관례를 벗어나 트럼프가 무슨 일을 칠지 모르겠다, 《상황이 우려된다.》고 하면서 전직미치광이에게 쥐어준것은 핵선제공격권한을 제한하여야 한다는 견해를 언론통과를 통해 표시하고있다. 전 미국방장관, 전 미국가정보국 장관, 전 미중앙정보국 장관을 비롯한 전직 고위당국자들 역시 트럼프가 자기의 발언이 어떤 죄를 가져올지 의식하지 못하고있다. 대북선제공격은 제3차 세계대전을 부를수 있다고 경고하면서 트럼프의 무력사용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있다. 《뉴욕 타임스》, 《워싱턴포스트》 등 미국의 주요언론들의 의회의 승인없이 대통령이 핵공격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해나서고있으며 시민단체인 《민주주의수호》는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받지 않고 북조선과의 전쟁을 일방적으로 시작할수 있는가고 비난하면서 트럼프행정부를 상대로 법적소송까지 제기하였다. 이처럼 미국의 정계, 사회계가 대통령의 무력사용권한을 제한해야 한다고 들고일어나는 사상 처음이다. 이것은 트럼프의 호전적폭언과 전쟁광기가 더 이상 참을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으며 그로 인해 초래될 파국적후과때문에 미국인들이 공포에 떨고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미국의 정계, 사회계가 우려하는바와 같이 트럼프의 무분별한 광태로 하여

조미사이에는 언제 핵전쟁이 터질지 모를 최악의 극단상황이 조성되어있으며 그것이 세계적인 열핵전쟁으로 번져지지 않는다는담보도 그 어디에도 없다. 이 험악한 사태를 수습해야 할 책임은 전적으로 미국에 있다. 미국이 대조선전대시정책과 핵위협공격을 그만두지 않는 한 그 핵으로 맞서는것은 공화국의 옹당한 자위적권리이며 이러한 원칙적립장은 앞으로 변함없다. 때늦은 감은 있지만 미국내에서 트럼프의 핵전쟁광기를 제어하려는 시도들이 보이고있는것은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수 없다. 그러나 트럼프의 무력사용권한을 제한하는것, 즉 그의 손발이나 묶는것이 미국인들이 핵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나살수 있는 현명한 방법으로 될수 없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트럼프와 같은 미치광이를 파면시키고 대조선전대시정책을 철회하는것이다. 그렇지 않고서는 미국과 온 세계가 핵전쟁악몽에서 벗어나살수 없다. 본사기자 김철민

미국의 핵전쟁위협은 미국을 위협한다

최근 미국이 《고강도제재압박을 통한 북조선핵문제해결》을 제쳐대며 방대한 《북조선이 전체 조건없는 비핵화협상에 나오도록 해야 한다.》고 떠들어대고있다. 지난 10월 18일 미국무성 부장관 설리번은 《우리의 목표는 압박을 통해 북조선이 전체조건을 달지 않고 협상에 나오도록 하는것》이라고 떠벌였으며 미국무성 대조선정책특별대표라는자도 《북조선과 협상을 한다면 전체조건없이 진지하고 신뢰할만한 협상을 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런가 하면 트럼프와 미군부는 국무성의 주장대로 《전제조건없는 비핵화협상》에 나오도록 《북조선의 태도변화》를 이끌어내자면 《군사적선택안》도 준비하고 국제적인 《포위봉쇄》와 함께 《전면밀착식 압박외교》를 더욱 강화해야 한

다고 고아대고있다. 전대미문의 미치광이나 발인 《완전과피》와 《절멸》 등과 같은 망발을 공언히 제쳐대며 방대한 핵전략자산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상시적으로 끌어 들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핵전쟁위협과 공갈에 광분하고있는 미국이 누구더러 《전제조건없는 비핵화협상》에 나와야 한다고 떠벌이고있는것은 포악하게 달려드는 날강도앞에서 주먹을 풀고 무릎을 꿇으라는것과 같은 괴롭치한 꾀변이다. 공화국의 핵보유는 미국의 핵공갈과 대조선전대시정책이 가져온 필연적적결이다. 이에 대해서는 세계지성과 양심이 공인하고있다. 시대착오적인 대조선전대시정책을 철회할데 대한 공화국의 정정당당한 주장과 그에 따른 원칙적요구를 그 무슨 《전제조건》으로 매도하는것은 저들의 야만적인 반공화국제재압박광판과 침략전쟁책동을 합리화하려는 비렬한 여론기만술책이며 적반하장의 극치이다. 미국은 민족의 존엄과 자주권을 생명처럼 귀중히 여기는 공화국이 저들의 강도적인 요구에 응할

수 있으리라는 얼빠진 망상을 버려야 하며 특히 공화국과의 비핵화협상은 꿈도 꾸지 말아야 한다. 공화국은 국제조약과 국제기구도, 다자간의 합의도 미국의 독단과 전횡을 막지 못하고 오히려 미국의 강권을 합리화해주는 도구로 전락된 비극적인 현실에서 자기를 지킬 힘은 오직 자기밖에 없는데 그것을 툭툭히 깨닫고 부득불 미국의 가중되는 핵공갈과 위협에 맞서 핵보유를 선택하는 전략적결단을 하였던것이다. 공화국의 병진로선은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기 위한 일시적인 대응책이 아니라 제국주의의 핵위협과 전횡이 계속되는 한 항구적으로 들어주고 나갈 전략적로선이다. 공화국은 대화를 반대하지 않지만 자기의 최고리익과 인민의 안전과 관련된 문제를 절대로 흥정락에 올려놓지 않을것이며 그러한 대화와 협상에는 추호의 관심도 없다. 미국은 뻔뻔스러운 말장난질에 매달리지 말고 현실을 똑바로 보아야 하며 더 늦기 전에 대조선전대시정책부터 포기하는 용단을 내리는것이 좋을것이다. 본사기자 최광혁

정신병자가 잘길은...

미국대통령 트럼프가 《정신이상》, 《정신건강이 매우 심각하고 위험한 상태》라는 의학적인 단을 받은 사실은 이미 세상에 잘 알려져있다. 이런 트럼프나 그의 손과 발, 나팔수노릇을 하는 패거리들의 말과 행동도 도저히 보통상식을 가지고는 리해할수가 없다. 지금 트럼프의 아시아 행가를 계기로 공화국에 대한 군사적압박에 미쳐 날뛰고있는 미국의 추태를 보아도 그렇다. 요즘 미국의 트럼프패거리들은 《필요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해 미국은 완전히 준비되어있다. 우리가 얼마나 완전하게 준비되어있는지를 안다면 충격을 받을것이다.》, 《북조선핵문제를 기어이 해결하겠다.》고 나팔을 불어대고있다. 공화국의 자위적인 핵전쟁억지력이 비상히 강화된 오늘 미국이 자랑하는 힘도 그리 대단한것이 아니다. 침략의 도발이 부를 정의의 보복이 두려워 터치는 아우성소리가 미국내에서도 그칠새없이

울러나오고있는것이 현실이다. 터무니없게 헛된 망상에 사로잡힌 트럼프패거리들만이 지금의 부정할수 없는 현실앞에서 파장된 험자랑을 하고있다. 한편 지금 미국은 공화국이 트럼프의 아시아행각기간 《도발》할수 있다고 떠들면서 《로날드 레간》호, 《니미쯔》호, 《시어도 루즈벨트》호 핵항공모함타격단들을 조선반도주변수역에 끌어들이 소란을 피워대고있다. 정신이 들락날락, 오락가락하는 정신이상환자에게서 파대망상증이나 피해망상증같은 병적증상이 나타나는데는 당연하다 하지만 그러한 정신병적광태가 돌아올 후과가 매우 심각한것이 문제이다. 지금 미래평양해군사령부는 이미 조선동해와 그 주변에서 작전중인 함선들이 명령만 내리면 즉시 행동을 할수 있도록 《토마호크》순항미사일 발사준비경고명령을 하달하였는가 하면 미공군은 랭전시기처럼 핵무장한 전략폭격기

《B-52》의 24시간 비상출격체제를 되살리고 남조선지역에 대한 핵전략폭격기 《B-1B》와 《B-2》의 빈번한 편대비행으로 불의적인 실전타격태세를 유지하고있다. 미국은 이에 대하여 《누구도 할수 없는 일을 미국이 할수 있다는것을 입증하는것》이며 《화력을 동원한 직접타격이 없이는 군사적압박효과를 내는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떠들고있다. 이러한 광란적인 행위는 가혹이나 침예한 조선반도정세를 최악의 계선으로 몰아가고있다. 미국의 트럼프패거리들이 무분별한 군사적도발망동에 매달리고있지만 그러한 무모한 핵위협공갈로 공화국을 놀래워보려는것이야말로 가소롭기 그지없는 일이다. 아무리 추태를 부려보았됐자 정신병환자가 같길은 뻔하다. 미국이 정신병적광태로 언을것은 더 큰 수치와 파멸뿐이다. 김성숙

위험천만한 북침핵전쟁모의판

미국과 남조선당국이 위험천만한 군사적공모결탁책동에 계속 매여달리고있다. 얼마전 서울에서는 미국방장관과 남조선국방부장관을 비롯한 국방, 외교관계자들의 참가하에 제49차 《한미년례안보협의회의》가 열렸다. 이번 협의회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미씨일위협》에 대한 《정보공유》와 미핵항공모함타격단훈련, 탄도미사일경보훈련을 비롯한 《대북군사적조치》들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쌍방 합동참모본부의장들이 참가한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에

서도 《한미년례안보협의회의》에 제기할 《북의 핵, 미사일위협》에 대비한 연합작전방안과 연합지휘통제체계 《C4I》의 호상운용성강화대책, 《작전계관을 비롯한 국방, 외교관계자들의 참가하에 제49차 《한미년례안보협의회의》가 열렸다. 이번 협의회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미씨일위협》에 대한 《정보공유》와 미핵항공모함타격단훈련, 탄도미사일경보훈련을 비롯한 《대북군사적조치》들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쌍방 합동참모본부의장들이 참가한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에

서도 《한미년례안보협의회의》에 제기할 《북의 핵, 미사일위협》에 대비한 연합작전방안과 연합지휘통제체계 《C4I》의 호상운용성강화대책, 《작전계관을 비롯한 국방, 외교관계자들의 참가하에 제49차 《한미년례안보협의회의》가 열렸다. 이번 협의회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미씨일위협》에 대한 《정보공유》와 미핵항공모함타격단훈련, 탄도미사일경보훈련을 비롯한 《대북군사적조치》들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쌍방 합동참모본부의장들이 참가한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에

서도 《한미년례안보협의회의》에 제기할 《북의 핵, 미사일위협》에 대비한 연합작전방안과 연합지휘통제체계 《C4I》의 호상운용성강화대책, 《작전계관을 비롯한 국방, 외교관계자들의 참가하에 제49차 《한미년례안보협의회의》가 열렸다. 이번 협의회에서 미국과 남조선당국은 《한미동맹》과 미국의 《확장억제공약》을 《재확인》하는 한편 《북미씨일위협》에 대한 《정보공유》와 미핵항공모함타격단훈련, 탄도미사일경보훈련을 비롯한 《대북군사적조치》들을 더욱 강화하기로 하였다. 이에 앞서 쌍방 합동참모본부의장들이 참가한 제49차 《한미군사위원회》에

남조선청년단체 트럼프의 남조선행각을 반대하여 성명 발표

남조선인터네트신문 《사람일보》에 의하면 《밤미 트럼프란핵 청년원정단》이 10월 30일과 31일 서울과 워싱턴에서 기자회견을 가지고 트럼프의 남조선행각을 반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단체는 성명에서 트럼프가 취임후 수차례 걸쳐 북

검토하겠다.》, 《화염과 분노에 직면할것이다.》, 《완전과피》라는 망발을 제쳐냈다고 까뻐했다. 성명은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기 위해, 세계의 평화를 위해 트럼프의 하루빨리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트럼프가 전쟁이 일어나도 조선반도에서 일어

나고 수천명이 죽어도 거기서 죽을것이라는 망발을 제쳐냈것은 조선민족을 모욕하는 망언이라고 성명은 규탄하였다. 남조선에는 트럼프가 발을 들여놓을 자리가 없다고 하면서 성명은 《우리는 우리를 모욕한 트럼프의 방문을 허용할수 없다.》고 지적하였다. 본사기자

《중언》하게 하는 놀음도 벌려졌다. 미국이 계단식으로 확대되는 반공화국제재압박과 군사적위협공갈에 병행하여 인권모략소동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있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있는가. 그것은 미국이 사상 류례없는 극악무도한 제재압박과 핵전쟁불장난

거히 엄중한 단계에 이르렀다는것을 툭툭히 보여주고있다. 간과할수 없는것은 미국이 조선반도와 그 주변수역에 3개의 핵항공모함타격단들을 비롯한 핵전략자산들을 끌어들이면서 긴장수위를 최고로 높이고있는것과 때를 같이하여 이러한 공공이관이 펼쳐진것이다. 현실은 전쟁미치광이 트럼프가 때없이 《군사적선택》과 《전쟁》을 떠들어대고있는데 따라 지금 미국이 위험천만한 군사적선택안을 실행에 옮겨보려고 갖은 발악을 다하고있다는것을 말해주고있다. 미국은 자멸을 초래할 위험천만한 도박에 매달

리기에 앞서 저들의 《군사적선택안》을 배격하는 내외의 목소리에 귀구멍을 열어두는것도 나쁘지 않을것이다. 지금 국제사회에서는 트럼프의 전쟁광기를 제지하여 끔찍한 파멸적재앙을 예방해야 한다는 여론이 날로 높아가고있고 미국내에서도 트럼프의 전쟁권한을 제한하는 법안들과 법적소송이 연속 제기되고있다. 미국과 남조선군부호전광모결탁과 북침전쟁도 발로 얻을것은 상상할수 없는 파멸과 참화뿐이라는것을 똑바로 알고 함부로 경거망동하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영진

악의 제국의 《인권》타령

《중언》하게 하는 놀음도 벌려졌다. 미국이 계단식으로 확대되는 반공화국제재압박과 군사적위협공갈에 병행하여 인권모략소동에 혈안이 되어 날뛰고있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있는가. 그것은 미국이 사상 류례없는 극악무도한 제재압박과 핵전쟁불장난

으로 모자라 지지도 않는 《인권문제》를 걸고 공화국의 전진을 기어이 가로막아보려고 최후발악하고있다는것이다. 미국이 인권모략날조에 얼마나 궁색했는가 하는것은 태영호와 같은 추악한 인간쓰레기까지 미의회에 끌어다놓고 해괴화할 목적밑에 《오토암비어 북핵제재법》으로 명명한 새로운 금융제재법을 조악하였으며 미하원의외원회청문회에 추악한 인간쓰레기인 태영호를 내세워 《북조선내부인권침해상황》을

물이다. 그러한 범죄자를 미국에까지 불러들여 그 무슨 《인권침해상황중언》이라는 광대극을 펼쳐놓은 미국화원떨거지들은 저들도 그 인간쓰레기와 한바리에 실어도 짝지지 않는 인간오작품이라는것을 스스로 드러내보였다. 사실 미국의 지난 행적



조선반도를 핵전쟁마당으로 전락시켜온 미제의 만고죄행을 고발한다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 북침핵전쟁연습반대 전민족비상대책위원회 공동고발장

지금 조선반도에는 미제의 극단한 반공화국전쟁광판으로 말미암아 당장 핵전쟁이 터질 수 있는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있다.

트럼프패거리들은 《군사적 선택》이니, 《완전과파》니 하는 폭언들을 마구 췌치며 반공화국제압살소동에 최후발악적으로 매여달리는 한편 조선반도와 그 주변에 방대한 핵전략자산들을 집결시키며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피눈이 되어 날뛰고있다.

내외신들은 랭전이 절정에 달하였던 1962년의 카리브해위기 이래 최대위기, 핵전쟁의 시계 바늘이 막바지순간에 다가서고 있다고 커다란 우려를 표시하고 있으며 세계의 이목은 일촉즉발

의 핵전쟁위기가 감돌고있는 조선반도에 집중되고있다.

조선반도가 오늘과 같이 세계최대의 열점지역으로 되고있는것은 결코 미국이 떠들어대고있는 《북핵위협》때문이 아니다.

그 근원은 전적으로 미제의 극악무도한 대조선침략정책과 핵전쟁도발책동에 있다.

조선평화옹호전국민족위원회와 북침핵전쟁연습반대 전민족비상대책위원회는 미제가 남조선에 강점한 후 오늘에 이르는 70여년간 핵무기로 우리 민족을 위협공갈하며 조선반도를 핵전쟁마당으로 만들기 위해 미쳐날뛰던 만고죄악의 역사를 날날이 까밝히기 위해 공동으로 이 고발장을 낸다.

1. 미국의 남조선강점과 핵전초기지화

오래전부터 조선반도를 타고앉아 아시아대륙침략의 교두보로 삼으려는 야망을 품고 있던 미제는 일제의 패망과 함께 남조선을 비법적으로 강점하고 파쇼적인 군정통치를 실시하면서 온 남녘땅을 북침전쟁과 세계제패를 위한 거대한 군사기지로 전변시켰다.

1950년 6월 리승만피도당을 사족하여 북침전쟁을 도발한 미제는 저들의 침략무력과 15개 추종국가 군대들, 남조선 피뢰군, 일본군국주의자들을 포함한 200여만의 대병력을 동원하여 우리 공화국을 정복하려고 날뛰었다.

그러나 영용한 우리 인민군대의 드센 반공격에 부딪쳐 패전만을 거듭하게 되자 당시 미국대통령 트루먼은 1950년 11월 조선전선에서 원자탄을 사용하려는 기도를 로골적으로 드러내었다.

미제는 《조선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복도지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떠들어대면서 공화국북반부지역에 원자탄을 투하할것이라고 위협공갈하여 수백만명의 피난민사태까지 빚어냈다.

조선전쟁에서 수치스러운 참패를 당하고 정전협정에 도장을 찍은 미제는 교훈을 찾을 대신 새로운 북침전쟁도발준비를 다그치면서 남조선을 핵전초기지화하는데 본격적으로 달라붙었다.

1953년 8월 리승만피도당과 범죄적인 《호상방위조약》을 조작하여 남조선을 영구적인 군사기지로 틀어쥘수 있는 토대를 구축한데 이어 1957년 2월 피뢰들과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을 핵무기로 장비할데 대한 모의를 벌렸으며 그해 7월 15일 미제침략군이 핵무장화에 착수한다는것을 공식 선포하였다.

그에 따라 미제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사단을 《펜토믹》원자사단으로 개편하고 《오네스트존》핵미싸일과 원자포대대를 남조선에 끌어들이었으며 1958년 1월 29일 남조선에 핵무기를 배치하였다는것을 발표하였다.

2월 3일에는 미제침략군 1군단 비행장에서 280mm원자포와

《오네스트존》핵미싸일을 공개하였으며 그후 미공군 588전술유도탄대대를 남조선에 배치하는 등 핵무기를 대대적으로 증강하였다.

1959년 5월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 8군사령부는 남조선에 있는 핵무기들이 《북의 선정된 목표를 타격할 완전한 준비를 갖추고있다.》고 공언하였다.

1960년대에 들어와 미제는 《펜토믹》원자사단을 《로아드》원자사단으로 개편하고 《나이크 허큘레스》, 《마라돌》, 《호크》를 비롯한 각종 원자 및 유도무기들을 남조선에 반입하였다.

미제는 비핵국가와 지역에 핵무기를 반입할수 없게 되어

2. 핵전쟁도발을 위한 반공화국핵모락소동

미제는 1980년대말—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국제정세에서 일련의 변화가 일어나고 대내외적으로 핵전쟁반대기운이 높아가게 되자 《북핵개발의혹》을 떠들어대며 조선반도에서 《핵위기》사태를 조성하였다.

랭전시기에 《쏘련의 위협》을 절고 핵무력증강에 날뛰던 미제는 랭전의 종식으로 그것이 더는 통하지 않게 되자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책동에 계속 매달리기 위한 새로운 구실을 찾기 시작하였다.

미제는 그 어떤 정세과동에도 흔들림없이 사회주의의 한길로 변함없이 힘차게 전진해나가는 우리 공화국을 눈에 든 가시처럼 여기면서 어떻게 하나 우리를 고립압살하기 위한 모락을 꾸미었으며 그렇게 하여 조작된 것이 바로 《북핵개발의혹》과 《핵위기》사태이다.

미제는 《북핵개발의혹》을 내두고 광란적인 소동을 피우면서 1993년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핵전쟁계획을 발표하였으며 1994년에는 《핵전쟁준비태세검토》요 하면서 《군사적응정》을 공개적으로 떠들어댔다.

2000년대에 들어와 미제는 《북의 핵무기개발세나리오》라는것까지 내뉘리며 반공화국핵소동을 더욱 미친듯이 벌리었다.

있는 핵무기전과방지조약이 나온 이후에도 그를 란폭하게 위반하고 남조선에 155mm곡사포 용핵포탄과 핵폭탄, 각종 핵미싸일, 핵적재용 《F-16》 전투폭격기들을 계속 끌어들이었으며 지어 《20세기 악마의 무기》로 불리운 증성자탄과 《퍼싱 2》 중거리핵미싸일 까지 전개하여 남조선을 극동최대의 핵무기고, 핵화약고로 전변시켰다.

미국이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핵무기는 1980년대 중엽에 벌써 1 720여개로서 그 배치밀도는 나토지역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의 4배이상에 달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남조선에서 미국핵무기를 철수시키고 핵전쟁위험을 가시기 위해 1959년 아시아에 원자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한 발기와 1974년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제안, 1981년 동북아시아비핵지대창설안, 1984년 핵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한 우리와 미국사이의 회담에 남조선당국도 참가하는 3자회담개최제, 1986년 조선반도비핵지대화를 위한 제안, 1994년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을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할데 대한 제안을 비롯한 수많은 건설적인 발기와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우리의 모든 제안과 노력을 외면하고 반공화국핵모락소동에 매달리면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더욱 발광하는것으로 대답해나섰다.

미국의 남조선에 끌어들이는 핵무기는 1980년대 중엽에 벌써 1 720여개로서 그 배치밀도는 나토지역에 배치된 미국 핵무기의 4배이상에 달하였다.

우리 공화국은 남조선에서 미국핵무기를 철수시키고 핵전쟁위험을 가시기 위해 1959년 아시아에 원자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한 발기와 1974년 조미사이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회담제안, 1981년 동북아시아비핵지대창설안, 1984년 핵전쟁위험을 없애기 위한 우리와 미국사이의 회담에 남조선당국도 참가하는 3자회담개최제, 1986년 조선반도비핵지대화를 위한 제안, 1994년 새로운 평화보장체계수립을 위해 미국과 협상을 진행할데 대한 제안을 비롯한 수많은 건설적인 발기와 제안들을 내놓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그러나 미제는 우리의 모든 제안과 노력을 외면하고 반공화국핵모락소동에 매달리면서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더욱 발광하는것으로 대답해나섰다.

이전 미국대통령 부쉬는 집권하자마자 1994년 10월 클린턴행정부가 우리와 채택한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조미기본합의문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렸으며 2002년 《년두교서》를 통해 우리 공화국을 《악의 축》으로 지명하는데 이어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킨 《핵태세검토보고서》라

는것을 발표하였다. 나중에는 우리에게 《핵사찰》을 떠들며 《핵계획을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포기》하라는 날강도적인 협박까지 하였다.

이것은 우리의 무장해제를 노린것으로서 공화국의 자주권과 존엄에 대한 참수수 없는 도전이고 란폭한 유린이었다. 미제는 반공화국핵모락소동으로 조미사이의 제네바합의가 파탄된 책임을 우리에게 넘겨줘우며 특히 역사적인 6. 15공동선언발표로 좋게 발전하던 북남관계를 가로막고 날로 높아가는 우리 겨레의 평화와 자주통일이운에 찬물을 끼얹기 위해 북침핵전쟁도발책동에 더욱 발광적으로 매달리었다.

조성된 엄중한 사태와 관련하여 우리 공화국은 나라와 민족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기 위해 2003년 1월 핵무기전과방지조약에서 탈퇴하는 단호한 조치를 취하였다.

이것은 국제규범에 완전히 부합되는 정정당당한 조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제는 국제원자력기구를 사족하여 핵문제를 유엔안보보장리사회에 들고가 소란을 피우는 한편 《군사적대응》을 떠들며 우리의 핵시설들에 대한 공격기도까지 로골적으로 드러내었다.

세기와 년대를 이어오는 미제의 극악무도한 반공화국핵

3. 계단식으로 확대되어온 북침핵전쟁연습책동

미제는 조선반도에서 핵전쟁을 도발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북침핵전쟁연습을 광란적으로 벌려왔다.

미제가 북침전쟁연습에 얼마나 광분하였는가 하는것은 지난 시기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은 24차, 《팀 스피리트》 합동군사연습은 17차, 《연합전시증원연습》은 8차, 《을지포커스 렌즈》 합동군사연습은 33차나 벌린데서 그대로 드러나고있다.

미국방성이 발표한 1997년도 《군사전략평가보고서》에 의하면 당시 미국이 해마다 전세계에서 감행한 군사연습의 30% 이상이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벌어졌다.

2000년대에 들어와 미제는 종래의 여러 군사연습을 통합하여 규모를 확대하고 명칭도 바꾼 대규모합동군사연습을 해마다 끊임없이 강행하였다.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과 《을지 프리덤 가디언》 합동군사연습은 올해까지 각각 10차례나 감행되었다.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에서 군사연습이 진행되고있지만 미제와 같이 정전직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60여년간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 대규모의 북침전쟁연습을 그칠 사이없이 벌려놓고있는 핵전쟁광신자들은 그 어디에도 없다.

4. 극한계선에 이른 미국의 핵전쟁도발광판

조선반도에서 미제의 핵전쟁도발책동은 미국에서 트럼프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극단에 이르렀고있다.

올해초 45대 미국대통령으로 백악관을 타고앉은 트럼프는 《최대한의 압박과 판여》라는 극악한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내두고 《화염과 분노》니, 《완전과파》니 하는 망발을 꺼리낌없이 췌치며 핵전쟁광기를 부리고있다.

트럼프패거리들은 초대형핵항공모함들인 《갈빈슨》호, 《로날드 레간》호 그리고 핵전략폭격기들인 《B-1B》, 《B-52H》, 《B-2A》, 핵동력잠수함 《콜럼부스》호, 《투싼》호, 《미시간》호를 비롯한 전략자산들과 최신전쟁장비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깊숙이 들이밀며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려보려 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과 내외여론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싸드》배치를 강행하고 미군 부우두머리들이 줄줄이 남조

소동과 핵위협공갈을 끝장내고 민족의 미래와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를 굳건히 담보하기 위해 우리는 부득불 핵보유라는 중대결단을 내리지 않을수 없었다.

결국 미제의 광란적인 반공화국핵모락소동은 우리를 핵보유에로 떠밀어 미국을 스스로 파멸의 위기에 몰아넣는 극적인 사태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3. 계단식으로 확대되어온 북침핵전쟁연습책동

미제의 북침핵전쟁연습은 그 규모에서도 세계최대이다.

수십만명에 달하는 미제침략군과 피뢰군, 추종국가들의 병력과 핵항공모함, 핵전략폭격기, 핵잠수함을 비롯한 방대한 핵전쟁수단들이 동원되고 있다.

미제는 1960년대와 1970년대에 벌써 북침전쟁연습에 핵항공모함인 《엔터프라이즈》호, 《미드웨이》호와 《랜스》핵미싸일부대, 《B-52》핵전략폭격기를 들이밀었으며 1980년대이후에는 미태평양함대에 소속되어있는 6척의 핵항공모함 거의 전부를 번갈아 투입하고 1990년대 중반부터는 《B-1B》핵전략폭격기를 출동시켜 핵폭탄투하연습을 감행하였다.

미제는 만성적인 경제위기 속에서도 막대한 비용을 탕진하며 우리 공화국을 겨냥한 핵전쟁연습을 계속 감행하고있으며 핵선제공격과 핵폭탄투하, 《평양진격》 지어 우리의 최고수뇌부를 노린 《참수작전》 훈련이라는것까지 공공연히 벌리는 등 그 내용도 갈수록 더욱 도발적이고 무분별한것으로 되고있다.

미국의 광기어린 핵전쟁연습책동으로 하여 남조선과 그 주변에서는 일년내내 화약내와 폭음이 가실 날이 없으며 조선반도에서는 핵전쟁의 위험이 더욱 짙어가고있다.

4. 극한계선에 이른 미국의 핵전쟁도발광판

조선반도에서 미제의 핵전쟁도발책동은 미국에서 트럼프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최극단에 이르렀고있다.

올해초 45대 미국대통령으로 백악관을 타고앉은 트럼프는 《최대한의 압박과 판여》라는 극악한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내두고 《화염과 분노》니, 《완전과파》니 하는 망발을 꺼리낌없이 췌치며 핵전쟁광기를 부리고있다.

트럼프패거리들은 초대형핵항공모함들인 《갈빈슨》호, 《로날드 레간》호 그리고 핵전략폭격기들인 《B-1B》, 《B-52H》, 《B-2A》, 핵동력잠수함 《콜럼부스》호, 《투싼》호, 《미시간》호를 비롯한 전략자산들과 최신전쟁장비들을 남조선과 그 주변에 깊숙이 들이밀며 핵전쟁의 불집을 터뜨려보려 하고있다.

남조선인민들과 내외여론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싸드》배치를 강행하고 미군 부우두머리들이 줄줄이 남조

루강아지 범 무서운줄 모르는 격으로 무모하게 놀아내고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 공화국은 다종화된 핵무기들과 《지구상의 절대병기》로 불리우는 초강력 수소탄, 임의의 시각에 임의의 장소에서 태평양작전지대의 미제침략군기지들은 물론 미국본토를 초토화할수 있는 강위력한 증강거리전력탄도로켓들과 전략잠수함탄도탄, 대륙간탄도로켓까지 보유한 세계적인 핵강국, 군사강국으로 위용 떨치고있다.

만일 트럼프가 우리의 의미심장한 경고를 무시하고 계속 핵전쟁도발책동에 미쳐날뛰면 미국의 완전파멸이라는 돌이킬수 없는 참혹한 후과만을 빚어내게 될것이다.

조선반도에 험악한 핵전쟁위기가 조성된데는 미국의 북침핵전쟁소동에 적극 가담해온 역대 피뢰통치배들에게도 큰 책임이 있다.

남조선의 현 당국도 미국의 반공화국제압박소동과 전쟁책동에 추종하면서 《싸드》배치를 강행하고 미국핵전략자산들의 《상시배치》를 간청하는 등 추악한 반역적책동을 서슴지 않고있다.

남조선당국이 미국의 핵전쟁광판의 희생물이 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이제라도 침략적인 외세와 친미굴종의식과 결별하고 민족공조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남조선의 각계층과 국제사회는 조선반도핵문제의 본질을 똑바로 알고 미국의 위험천만한 핵전쟁책동을 단호히 반대배격해나서야 한다.

일부 나라들이 정의의 우리 핵과 침략적인 미국의 핵을 동일선상에 놓고 그 무슨 《쌍중단》을 주장하고있는것은 조선반도핵문제의 본질과 인과관계, 자위의 핵과 폭제의 핵을 가려보지 않는 무책임한 처사이다.

세계의 량심과 공정한 여론은 누가 누구를 위협하고 어느 것부터 먼저 해결되어야 하는가를 옹계 인식하고 미제의 핵전쟁도발책동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미국은 당당한 핵보유국인 우리 공화국의 전략적지위를 깨닫지 못하고 부질없는 반공화국적대시정책을 당장 견여치워야 한다.

미제가 핵무기로 우리 민족을 위협공갈하던 시대는 영원히 지나갔으며 민족공동의 전략자산, 평화와 통일번영의 보검인 우리의 핵억제력은 미국의 침략과 핵전쟁책동이 완전 종식될 때까지 더욱 억척같이 다져지게 될것이다.

전체 조선민족은 조선반도를 핵전쟁마당으로 전락시켜온 미제의 만고죄행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철천지원수, 백년숙적 미제를 쓸어버리고 겨레의 삶의 터전이고 보금자리인 조선반도의 평화를 굳건히 지켜나갈것이다.

주제106(2017)년 10월 30일 평양

외교적무지와 무능의 극치

남조선당국이 《주변4강외교》에 대해 계속 떠들어대고있다. 남조선 집권자는 얼마전 미국, 일본, 중국, 로씨야주제 남조선대사직에 최측근들을 임명하고 그 자리에 서 《주변 4개국 우리 외교에 근간이 되는 나라들이다.》, 《북의 핵, 미사일위협이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북핵해결과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평화체제구축을 위해 4개국외교가 정말 중요하다.》고 력설했다. 그런가 하면 남조선당국은 11월초 미국대통령의 서울행과 관련한 《환영행사》를 요란하게 준비한다. 주변국들에 축하인사를 보낸다 어쩌다 하면서 그 나라들의 환심을 사보려고 부산을 피워대고있다.

《북핵문제》해결을 떠들며 여기저기 돌아다다라 포퓰적인 무시와 따돌림만 당하게 되자 남조선당국이 《주변4강외교》

놓음에 이렇듯 발악적으로 매달리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의 《주변4강외교》라는것은 이미 박근혜대당이 내들었다가 실패의 고배를 마신 《균형외교》의 복사판이다. 이른바 균형외교를 표방해온 박근혜 《정권》의 외교정책을 뒤집어보면 사실상 여기저기에 몸을 파는 늑대가 《창녀외교》였다. 지난 시기 박근혜가 《균형외교》를 떠들며 멋없이 놀아대다가 집권 1년도 못되어 주변국들의 랭대와 조소의 대상이 되고 지어 《누구의 편에 서겠는가.》하는 량자택일까지 강요당하는 신세가 된것은 외세의존과 사대매국책동의 응당한 결과였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여기에서 교훈을 찾을 대신 이전 박근혜 《정권》시기의 외교정책을 그대로 답습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이 《주변4강외교》를 통해 추구하는것은 주변국들을 반공화국제재압박공조에 더 깊숙이 끌어들여 《북핵문제》를 해결해보려는데 있다.

다 아는것처럼 남조선당국은 외세의 식민주구로서 자주적대도 없고 그 어떤 원칙도 없으며 여기저기에 빌붙어 눈치를

보아야만 살아갈수 있는 처지에 놓여있다. 《싸드》문제가 그 대표적인 실례이다. 미국의 압력에 굴복하여 끌어들인 세계적인 재앙거리인 《싸드》때문에 남조선에 차레진것은 과연 무엇인가. 은 남조선당이 련장들의 대결장으로 전락된것은 물론 주변나라들의 정치, 경제, 문화적복복의 대상이 되어 총체적고립과 붕괴에로 줄달음치고있는것뿐이다.

이밖에도 《〈한〉미자유무역협정》재협상문제, 남조선강점 미군유지비분담금문제, 일본군성노예 《합의》문제, 《〈한〉미일군사동맹》강화문제 등으로 하여 대외적으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있는것이 남조선의 현 외교실태이다.

남조선당국의 《주변4강외교》라는것은 한마디로 서로 타협할수 없는 대립관계에 있는 주변국들의 속내도 모르고 헤덤벼치는 외교적무지무능의 극치이다.

남조선당국은 제 처지도 모르고 구차스러운 구걸놓음에 계속 매달리다가는 이전 박근혜 《정권》처럼 수치스러운 과멸밖에 차레질것이 없다는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리 어 금

남조선의 《국방부》 장관 송영무가 짧은 세치 혀로 화만 불어오고있다. 얼마전 그는 《국회》에서 진행된 《국정감사》라는데서 《북은 언젠가는 무너질 정권》이라고 떠들며 꼴수에 배인 반공화국대결속심을 그대로 드러냈다.

송영무의 망발은 미국의 악랄한 대조선적대정책에 추종하여 조선반도에 최악의 전쟁위험을 불러오는 추악한 공범자의 파렴치한 궤변으로서 날로 승승장구하는 공화국의 위력에 속이 뒤떨러 짓어대는 대결병자의 너두리에 불과하다.

따지고보면 송영무는 《국방부》 장관으로 임명되기 전부터 지금까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북에 대해 《북괴》로 표현하겠다, 북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할수 없다. 북을 분명히 《주적》으로 규정지을수 있다. 북의 핵 및 탄도미사일시험은 《한》반도와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중대도발이다. 《참수작전》에 대한 언급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는 등 공화국에 대해 악의에 찬 망발질만 해온자이 다. 이런 대결광신자이기 에 송영무는 현 《정권》이 들어선 이후 그 누구보다 앞서 처음으로 《북정권붕괴》망발까지 서슴지 않고 마구 해대는것이다. 최근에는 《국방부》 장관이면 무엇이든 다 해낼수 있다는 개꿈같은 망상속에 《참수작전》계획과 《북의 심장부를 파괴할 정예공정사단》 창설까지 떠들어대며 물을 본미

친개마냥 분별없이 날뛰고있다. 동족대결에 환장이 되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날뛰는 송영무의 추태는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참을수 없는 중상모독으로서 절대로 용납될수

없다. 문제는 북남관계가 최악의 과국상태에 처하고 조선반도정세가 일촉즉발의 극단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때에 남조선군부의 우두머리라는자의 입에서 위험천만한 도발망언들이 실새없이 튀어나오고있는것이다.

이로써 송영무는 동족에 대한 적대감, 《흡수통일》야망이 뼈속까지 짙찬 대결광신자로서의 추악한 정체를 여지없이 드러

냈다. 공화국은 이미 자기의 존엄과 체제에 도전해나서는자들에게 어떤 무자비한 징벌이 차레지는가 하는데 대해 명백히 경고하였다.

세치 혀가 긴 목을 감는 다고 송영무는 더러운 주둥이를 함부로 놀려댄 대가가 얼마나 처참하고 가혹한것인가를 머지않아 똑똑히 알게 될것이다. 그때 가서 후회는 때늦은것이다.

송영무와 같은 대결망나니를 《국방부》 장관자리에 앉혀놓고 극구 비호두둔해온 남조선당국자도 책임에서 벗어날수 없다.

집에 불이 나라고 계속 불찌만 튀겨대는 이따위 동족대결분자, 호전분자를 끼고돌다가는 진짜 재앙이 밋어질수 있다.

리 전 봉

세치 혀로 재앙만 몰아온다

남조선 각지에서 전민항쟁개시 1툭에 즈음하여 대중적투쟁 전개

보도들에 의하면 박근혜역도 권력의 자리에서 몰아낸 전민항쟁개시 1툭에 즈음하여 10월 28일 남조선의 여러 지역에서 보수 《정권》의 적폐청산과 사회개혁, 조선반도평화보장을 요구하는 대중적투쟁이 전개되었다.

본사기자



남조선에서 보수의 추악한 적폐를 청산할데 대한 요구가 높아가고 있는 속에 최근 리명박역도가 집권기간 저지른 죄악들이 련이어 드러나 사람들의 경악을 자아내고있다.

알려진바와 같이 리명박역도는 지금까지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와 언론들이 공개한 《국정원》정치개입사건, 문화예술인 요시찰명단작성사건, 사이버사령부의 《대글》공작사건을 비롯하여 자기의 집권기간에 제기된 부정부패의혹들이 한갓 허위라고 우기면서 죄과를 부인하여왔다.

그런데 그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얼마전 남조선의 《SBS》방송은 2008년 미국산 소고기수입반대 촛불투쟁 이후 청와대가 직접 《MBC》, 《KBS》를 비롯한 방송사들의 인사문제에 로골적으로 개입하였으며 리명박 《정부》에 반감을 품고있는 언론인들을 수백명이나 해고하도록 압력을 가한 사실을 폭로하였다. 그런가 하면 《한겨레》는 리명박역도가 2010년 11월 22일 사이버사령부에 《대글》공작인원을 중강하고 《현역은 복무기간이

지나면 제대하기때문에 민간인을 활용하라.》며 지시한 내용과 《총선》과 《대선》을 앞두 고있던 2012년 2월 또다시 사이버사령부의 인원증강을 강조한 사실을 폭로하면서 그와 관련된 문건을 전부 공개하였다.

이뿐이 아니다. 남조선의 유신종합방송 《JTBC》는 리명박집권 시기 청와대와 정보원이 보수언론들에 《로무원의 처 권향속이 시계를 눈두

룬적범죄가 남조선 각계층의 분노를 자아내는것은 당연하다. 지금 시민사회단체들은 물론 일반시민들도 《리명박속여론이 박근혜탄핵여론과 엇비슷하게 나타나고있다. 리명박에 대한 민심의 반응이 험악해지고있다》고 평하면서 역도가 최고랑을 찰 날도 멀지 않았다고 하고있다.

사실상 리명박역도는 이미전에 감옥행을 했어야 마땅하다. 그런데 역도는 제가지은 죄악에 대한 심판이 두려워 온갖 사기와 불법, 관권으로 자기와 한바리에 실어도 짝지지 않을 박근혜년 권력의 자리에 앉혀놓고 그 그늘 밑에서 자기의 추악한 범죄들을 가리워왔다. 리명박의 더러운 흥심과 음모가 없었으면 박근혜역도는 권력의 자리에 앉지도 못하였을것이고 리명박역도는 《대통령》감투를 내려놓는 순간에 감옥에 처박히는 신세가 되었을것이다.

현실은 남조선에서 보수의 추악한 적폐를 청산하면 리명박역도와 함께 리명박역도도 단호히 징벌해야 한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본사기자 김 응 철

이미 알려진바와 같이 지난 10월 말 남조선의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가 미국상전을 찾아가 《전술핵배치》를 구걸하며 역스럽게 놀아냈다.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조선전쟁에서 황천객이 된 양키침략군 묘지부터 찾아가 참배한 홍준표는 미행정부관료들, 미의회 여야의원들, 조선반도문제 전문가들을 만나 《5000만 국민들이 북의 핵인질이 된 심각한 상황이다.》, 미국과 남조선은 《나토식 자유주의 핵동맹》을 맺고 핵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전술핵무기들을 재배치해달라.》고 생떼를 부리며 돌아쳤다.

그러나 미국 민주당소속 의원들과 조선반도문제 전문가들은 이자의 생떼에 대해 《군사적효용성이 없다.》, 《바람직한 행동이 아니다.》고 면박을 주고 지어는 《전술핵을 재배치하지 않으면 자체 핵무장을 하겠다고 미국을 위협하는것인가.》고 울리며 랭대하였다.

같은 수모를 당하면서도 홍준표는 미국 한복판에서 공화국에 대해 《강패를 다룰 때는 강패처럼 다루어야 한다.》, 《트럼프의 북핵대응방식은 아주 적절하다.》고 웨쳐냈으며 현 남조선당국을 《친북좌파》, 《주사파 《정권》》

《홍끼호떼》의 핵구걸방담대개미

이탈하며 제놈의 몸값을 올려보려고 같은 추태를 다 부렸다. 이를 두고 남조선 각계층은 홍준표의 이번 미국행각에 대해 《없는것을 달라고 생떼를 쓰려 간악한 핵구걸방담》, 《몸값올리기 위한 핵구걸방담》, 《핵으로 정국을 주도해보겠다는 어리석은짓》, 《국제적망신》,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샌다.》 등으로 강하게 비난조소하고있다.

력대 남조선정치사에 보수패당의 대미굴종적추태들이 수다하게 기록되었지만 홍준표처럼 핵구걸광대놓음을 벌리며 해피하고 빙충맛게 놀아댄 역적은 일찌기 없었다. 오죽했으면 남조선 각계가 지난 세기의 유물인 시대착오적인 《나토식 핵동맹》타령을 외워대는 눈을 가리켜 《아닌 밤중에 홍두개 내민 홍끼호떼》라고 조소하였겠는가.

더우기 참을수 없는것은 공화국에 대해 《강패를 다룰 때는 강패처럼 다루어야 한다.》, 《트럼프의 북핵대응방식은 아주 적절하다.》고 떠들며

반공화국대결악담을 웨쳐댄것이다. 홍준표의 미국행각은 허튼 개나발을 불어서라도 상전의 눈도장을 찍고 제놈의 주위에 친미보수세력을 규합하여 정치적 야욕을 실현해보려는 추악한 짓거리의 다른것이 아니다.

홍준표로 말하면 박근혜의 부역자로서 역도년과 함께 감옥에 처박혀야 할 특등범죄자이다. 이런자가 뼈젓이 고개를 쳐들고 구정물같은 악담질로 세상을 소란케 하고있으니 홍준표야말로 한시바빠 처치해버려야 할 남조선사회의 재앙거리이며 민족의 화난거리이다.

지금 공화국의 천만국민은 더러운 주둥이로 감히 존엄높은 사회주의제도를 중상모독한 홍준표를 릉지처참해버려야 한다고 분노의 목소리를 높이고있다.

특등친미사대매국노, 더러운 정치간상배인 홍준표는 제멋대로 노는 제놈의 짧은 혀때문에 긴목이 날아난다는것을 명심해야 할것이다.

본사기자 김 명 성

《홍끼호떼》의 핵구걸방담대개미

《만평》 자살 망 동

《북은 언제인가는 무너질 정권》

송영무

초리

그놈에 그놈이다

링에 버렸다는 여론을 터뜨려 로무현을 망신시키라.》고 지시를 내린 논두렁시계 사건조작사실이 담겨져있는 문건을 입수하여 공개하였다.

한편 리명박역도의 집권시절 궁기무사령부가 《천안》호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기록영화제작을 준비하던 영화인에 대한 사찰을 진행하였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오물은 들출수록 악취만 난다고 썩은 보수 《정권》들은 박근혜 《정권》이건 리명박 《정권》이건 하등 다를데가 없다. 역시 그놈에 그놈이다. 날이 감에 따라 새라새롭게 드러나는 리명박역도의 반인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시민들은 분노하고있다.》, 《리명박을 구속하고 적폐청산 완수하자!》, 《국민재난피해찾기운동본부》, 《취(리명박)를 잡자 특공대》를 비롯한 각종 단체들을 결성하고 리명박역도에 대한 구수청원 운동을 벌리고있다. 얼마전에는 서울광화문광장에서 수만명의 각계층이 모여 《리명박이 집권기간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시민들은 분노하고있다.》, 《리명박을 구속하고 적폐청산 완수하자!》, 《국민재난피해찾기운동본부》, 《취(리명박)를 잡자 특공대》를 비롯한 각종 단체들을 결성하고 리명박역도에 대한 구수청원 운동을 벌리고있다. 얼마전에는 서울광화문광장에서 수만명의 각계층이 모여 《리명박이 집권기간

화를 불러오는 북침전쟁광기

최근 남조선의 전라남도 제주도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서는 《민, 판, 군》이 동원되는 《2017년 하반기 총무》훈련과 《화랑》훈련이 벌어졌다.

이번 훈련소동은 명백히 남조선내부에 동족에 대한 적대의식과 전쟁분위기를 고취시키려는 범죄적놓음이고 남조선군은 물론 모

든 인적, 물적자원을 미국의 무모한 북침전쟁책동에 강그리 섬겨바치려는 쓸개 빠진 망둥이다.

조선반도에 일촉즉발의 핵전쟁위기가 감돌고있는 지금과 같은때에 남조선당국이 부리는 북침전쟁광기가 어떤 무서운 화를 불러올지는 그 누구도 예측할수 없다.

지금 미국은 반공화국제재압살소동에 최후발악적으로 매여달리는 한편 조선반도와 주변에 방대한 핵전략자산들을 집결시키며 북침전쟁도발책동에 피어는 되어 날뛰고있다. 이에 편승한 남조선호전세력들은 저들의 행위가 어떻게 매국배적적이고 범죄적인 망둥으로 되는가도

모르고 미쳐날뛰고있다. 서툰 주먹질을 하다가는 날아오는 무서운 몽둥이찌질에 사동뺨가 부서지기 일쑤이다.

남조선의 호전광들은 저들의 북침전쟁도발광기가 몰아올 후과가 과연 어떤것인가 새겨나 보고 함부로 설쳐대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김 련 옥

《만평》 자살 망 동

《북은 언제인가는 무너질 정권》

송영무

초리



《백두산 8경》 (4)

조선의 명산 백두산의 절경중에는 백두의 칼바람도 있다.

한번 불어치면 만리창공에 백설을 휘날려올리고 천지의 푸른 물로 격랑을 일으켜 바위를 치고 절벽을 들부시며 천심을 울리고 지축을 뒤흔드는 백두의 칼바람은 참으로 장관이다.

백두산에서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날은 년중 230여일이나 되는데 장군봉에서의 최대바람속도는 60m/s이고 순간최대바람속도는 78.6m/s이다. 백두산에서는 금시까지 잠풍하다가도 어디서 생겨나지 강풍이 일어나면 산과 수림, 천지일음을 우에 쌓여진 눈이 휘말려 오르기도 하고 이쪽 산을 저쪽으로 옮겨놓기

도 하며 사방에서 평장한 눈사태가 일어나고 밀림은 눈보라에 자취를 감춘다. 백두산의 휘몰아치는 눈보라는 살을 에이는듯한 맵쌀 칼바람을 동반한다. 겨울날 칼바람이 일

백두의 칼바람

어니만 룡선과 계곡에 쌓여있던 수십m 눈도 순간에 저 멀리 밀림속으로 날려가버린다. 이처럼 천변만화의 조화를 부리는 것이 바로 백두산의 칼바람이다.

백두산의 독특한 자연이 만들어낸 칼바람이지만 여기에는 위대한 우에 쌓여진 눈이 휘말려 오르기도 하고 이쪽 산을 저쪽으로 옮겨놓기

의 칼바람을 안고 혁명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야 한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혁명가들에게는 혁명적신념을 버려주고 기적과 승리를 가져다주는 파스한 바람이지만 적대세력들에게는 돌풍이 되어 철추를 내리는 날카로운 바람이 백두의 칼바람이다. 백두의 칼바람맛을 잊으면 혁명의 길을 끝까지 갈수 없기에 온 나라 군대와 인민은 민족의 성산 백두산으로 끊임없이 오르고있으며 백두의 혁명정신, 백두의 칼바람정신으로 조선의 영원한 정신으로 새겨안고 최후승리를 향하여 힘차게 행군해

가고있다.

수년전 백두의 칼바람을 맞으시며 백두산에 오르시었던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서 백두산의 칼바람을 직접 맛

아보아야 백두산의 진짜맛, 백두산의 진짜매력을 알수 있다고 하시면서 우리는 혁명적신념을 버려주고 최후승리의 신심을 북돋아주는 백두

사회과학원 주제문학연구소 연구사 김주현

22개 대상이 국가비물질 문화유산으로 새로 등록

최근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22개 대상이 국가비물질 문화유산으로 새로 등록되었다.

민족유산보호지도체제의 일꾼들은 여러 단위들과의 긴밀한 연계밑에 우리 민족의 유구한 역사와 문화를 반영한 비물질문화유산들을 적극 찾아내어 등록하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벌여왔다. 그리하여 많은 대상들이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새롭게 등록되게 되었다.

사회적관습과 레식 및 노동생활습속에 해당되는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서 조선식지방양식, 조선식담근축술, 비단생산기술과 함께 조선장기, 썰매타기, 꿀벌치기가 등록되었다.

우아하고 아름다운 곡선미로 특징지어지는 조선식지방양식과 세상에 자랑할만 한 우수한 랍들을 일떠세우는데 널리 이용된 조선식담근축술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발전해온 우리 민족의 건축술을 잘 보여주고있으며 어른들의 겨루기오락인 조선장기와 어린이들의 놀이인 썰매타기 역시 우리 민족의 락천적이고 정서

적인 생활기풍을 전하는 귀중한 유산이다. 이번엔 새로 등록된 국가비물질문화유산들에는 전통의술에 속하는 부항료법과 훈종료법, 시중호 감방료법들도 있다.

부항단지를 리용하여 해당 병조부위나 혈에 음압을 조성하는 방법으로 병을 치료하는 부항료법과 고려약재를 끓이거나 태울때 생기는 증기와 연기를 병이 든 자리나 혈에 쏘여주는 훈종료법은 우리 나라에서 오래전부터 발전하여온 전통적인 고려치료방법으로서 국가비물질문화유산의 보물고를 더욱 풍부히 하고있다. 전통음식과 생활기풍에 속하는 여러 대상들도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새로 등록되었다.

대표적으로 추어탕과 전골을 들수 있다. 단백질, 필수아미노산, 불포화지방산 등이 풍부히 들어있는 추어탕은 사 람들의 몸보신에 좋은 건 강음식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오랜 전통을 가지고있는 전골 역시 그 가지

수다 다양한뿐 아니라 맛 또한 독특한것으로 하여 오늘날 우리 인민들의 식 생활을 이채롭게 장식하

며 민족적향취를 더해주고있다.

이외에도 훈민정음창제 원리와 붕이 김선달이야기, 설죽화전설, 백자제조술, 수인목판화기법, 해금제작기술 등이 국가비물질문화유산으로 새로 등록되었다.

붕이 김선달에 대한 이야기 가 오랜 세월 사람들 속에서 전해져온것은 거기에 량반관료배들의 위 선과 탐욕, 거드름을 폭로야유하고 착취계급을 중오하며 저주해온 우리 인민의 사상감정이 반영 되어있기때문이다.

또한 설죽화전설은 나라를 위하여 목숨바치는 것을 영예로운 일로 여기며 죽을지언정 원수놈들에게 굴하지 않는 우리 인민의 민족적절개와 아름다운 정신도덕적품모를 잘 보여주고있다.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 능이 그대로 비껴있고 세기와 세기를 이어 끊임없이 계승발전되어온 많은 대상들이 국가비물질문화 유산으로 새로 등록됨으로써 나라의 비물질문화 유산들을 적극 보호하고 빛내어나갈수 있는 토대가 더욱 튼튼히 다져졌다.

본사기자



개성에 있는 송양서원

인기있는 삼흥정보기술교류소

특히 길안내프로그램인 《길동무 1.0》은 착상이 매우 좋고 대단히 쓸모있으며 편리하다. 목적지까지 정확히 갈수 있게 해주는 정말 좋은 길동무라고 사용자들은 저저마다 말하고 있다.

이곳 교류소의 고혁남소장은 창설년한이 짧은 교류소가 올해 10대 최우수정보기술기업으로 선정될수 있는 것은 비약하고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기술전략을 바로 세우고 첨단산업에서 언제나 앞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려는 기술집단의 노력의 결과이라고 하면서 앞으로 근로자들이 좋아하고 편리성을 도모해주는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개발할것이라고 말하였다.

본사기자

건강에 좋은 민족전통음식 떡운공과 장두부

공화국의 류경떡운공공장에서 우리 식의 떡운공 생산공정을 확립하여 맛있고 영양가 높은 발효식품인 떡운공과 장두부를 생산하고있다.

우리 민족의 전통음식의 하나인 떡운공은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하고 혈전과 암성질병, 소화방지에 특효가 있다.

혈전용해작용이 뛰어나 하루에 50g만 섭취하여도 혈전용해약품을 쓴것과 같은 효과를 볼수 있다.

이밖에도 간과 위의 기능을 높여주는데도 아주 좋다고 인정되고있다. 또한 필수아미노산과 비타민, 광물질들도 풍부하게 포함되어 있어 면역력을 높이고 혈압을 낮추며 뼈성김증, 빈혈, 탈모 등을 비롯한 여러가지 질병들도 치료하고 미용효과도 뛰어나다.

떡운공을 정상적으로 섭취할 때 하루소비량은

50g정도이며 치료를 목적으로 할 때에는 100~150g까지 섭취할수 있다.

먹는 방법을 보면 상표를 뜯고 팩안에 있는 간장과 겨자를 넣고 버무려서 먹는데 구미에 맞게 파, 마늘, 고추가루를 비롯한 다른 여러가지 조미료들을 더 넣어 먹을수 있다. 또한 더운 밤에 비벼먹을수도 있고 절구에 찧어 다른 료리에 섞어 먹을수도 있는데 좋기는 생것으로 먹는것이 더 리상적이다.

각종 아미노산과 비타민이 풍부한 영양식품인 장두부 또한 떡운공 못지않게 건강에 아주 좋다.

류경떡운공공장에서 생산한 질 좋은 떡운공과 장두부는 여러 상업망들에서 판매하고있으며 사람들의 건강증진에 큰 도움을 주는것으로 하여 대단한 호평을 받고있다.

본사기자

사화 리규보와 《해좌7현》 (2)

글 전철호, 그림 박봉혁

하여 《해좌7현》들은 경천사절간이 바라보이는 부소산 맞은편의 한적한 산속에 거처지를 정하고 《기로회》와 맞서서 아니, 어찌보면 무신집권자들과 맞서서 나라를 망치고있는 그네들의 죄행을 폭로비판하는 시를 지어 내게 되었다.

이때부터 사람들은 《해좌7현》이 거처지를 정한 산속을 가리켜 의로운 선비들이 피신해들어간 골안이라고 하여 《피사골》이라고 불렀다.

옛적부터 세상에는 《7현》이라는 말은 있었어도 《8현》이란 소리는 없었기에 리규보는 단지 그런 리유로 하여 《해좌7현》이 자리잡고있는 피사골로 갈 용단을 내리지 못한것이였다.

지난해 오세재는 동경(진주)으로 내려가면서 꼭

피사골로 찾아가보라는 글월을 또 보내여왔었다. 그때는 리규보가 천마산에 나가있어서 제때에 글월을 받아볼수 없었다. 아버지에게 세배를 드리러 집에 돌아와서야 글월을 뜯어본 리규보는 오세재가 없는 피사골로 가고싶은 마음이 나지 않아서 그때에도 발길을 하지 않았었다.

그런데 며칠전 오세재가 동경에서 병마에 시달리다가 끝내 세상을 하직했다는 슬픈 소식을 받게 되었다.

이렇듯 뜻밖에 오세재가 없고보니 그의 말을 따르지 않은것이 더더욱 후회되었다.

그래서 늦게나마 고인의 뜻을 따르기로 마음먹고 아버지에게 자기의 의향을 아뢰었다.

아버지 리운수는 쾌히

허락하고나서 이렇게 말하였다.

《《해좌7현》과 사귀겠다는 건 아주 좋은 일이 다. 그 사람들은 학식으로 보나 재주나 인격으로 보나 당당히 임금의 보필이 될수 있는 재사들이야. 그런 재사들에게서는 밥을 꾸러가지고 따라다니면서라도 배워야 하느니라.

너에겐 성급하고 저만 제일인척 하는 몸쓸 버릇이 있는즉 사람들을 대함에 있어서 매사에 조심하고 또 조심하며 어깨를 한껏 낮추어서 부디 공손해야 하느니라.》

리규보는 늘 엄격한 훈시로 자기가 할바를 깨우쳐주는 아버지를 존경했다. 비록 벼슬은 높지 않아 나라의 호구와 공물, 조세 등을 맡아보는 호부의 정5품관인 랑중을 지

내지만 불의앞에서는 그가 누구이든간에 자신의 지조를 굽히지 않는 아버지였기에 리규보는 그를 자기의 아버지만이 아니라 일생의 스승으로 받들고있었다....

《아이쿠!—》 하마트면 리규보는 넘어질뻔 하였다. 바닥



는 생각에 빠져들어 걸다 보니 시 《동명왕편》을 짓던 때가 눈앞에 얼른거러였다.

《후유—》 안도의 숨을 내쉬고 앞을

바라보니 천랑고개였다. 천랑고개에 올라서서 잠시 주위를 둘러보니 안릉(3대 정종왕의 무덤)과 유릉(16대 예종왕의 무덤)이 있는 골안이 뻗어 굽어 보였고 멀리로는 송악산에 가리운 천마산의 뒤편 리도 언뜻 보였다.

천마산에 눈길을 주고 하여 《구삼국사》, 《삼국사기》와 같은 당시 우리 나라의 사기책들과 송나라의 《위서》며 《통서》같은 다른 나라들의 사기책들까지 구해보았고 마참내는 하늘임금의 아들 동명왕의 신비스러운 행적을 알아내어 시를 지었던것이다.

《이녀석아, 그만쯤 한 눈을 팔지 말라고 하질 않았느냐?》 리규보는 지척에서 들려오는 꾸중소리에 흠칫 놀라 눈길을 돌리었다. 어떤 로파가 고개길에 넘어져 우는 어린애를 붙들어 일으키고있었다. 리규보는 로파의 꾸중소리가 마치도 자기에게 한 소리같이 얼굴을 붉히었다. (한나절안으로 피사골에 가자던 노릇이 결국은 길가에서 지는해를 보겠

아버지의 말구종이 하는 말이 피사골은 회빈문에서 남쪽문으로 20여리 떨어진 곳에 있는데 정주 고을로 가는 행길을 따라서 10여리쯤 가다가 서쪽으로 가지를 친 달구지길로 해서 또 그 길에서 갈라진 소로길을 한참 속내면 령길이 나지는데 바로 그 골안에 《해좌7현》들이 살고있다고 하였다.

아는 길도 물어가됐다는 옛 글귀대로 만나는 사람들마다 부지런히 피사골을 물어보며 달구지길로 해서 소로길에 접어들어 리규보에게 언뜻 몇번 만나본적이 있는 리인으로 가 떠올랐다. 나이가 리규보보다 16살이나 우인 리인로는 키가 큰데다 얼굴 또한 옥같이 미끈하여 사람들로부터 미남자라고 불리우는 사람이었다.

정중부의 《무신의 란》을 피해 굶어 한때 중노릇을 하였던 그는 서른고개에 나가 급제하고 국사를 기록하는 춘추관의 직사관을 맡아하게 되었다.